

海外直接投資 理論에 對한 體系的 考察

許 永 道

經營學科

(1985. 4. 30 접수)

〈要 約〉

本論文에서는 最近 國際經營學 分野에서 대단한 關心을 집중시키고 있는 海外直接投資에 대해서 그동안 開發된 諸理論들을 體系的으로 分析 整理해 보고, 各理論들이 지니고 있는 限界點을 檢討해 봄으로써 海外直接投資에 대한 一般理論의 開發에 보탬이 되고,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 理論의 開發에 出發點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海外直接投資에 관한 理論은 대단히 많고 그 說明力 또한 差異가 많기 때문에 本論文에서는 이들을 理論으로 보지 않고 假說로 다루었다.

先進國의 경우 海外直接投資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企業特有的 優位, 內部化 優位, 立地優位の 세 가지 條件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立場은 鄧寧의 折衷理論에 의해 가장 잘 代表되는 것으로 結論지을 수 있겠다.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先進國 理論을 그대로 適用하려는 立場, 開途國 固有의 理論을 개발하려는 立場 및 先進國 理論을 修正適用하려는 立場 등이 있으나 대체로 그 理論의인 골격은 折衷理論의 構造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韓國의 海外直接投資 理論을 開發함에 있어서도 基本的으로 折衷理論의 立場에서 出發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A Survey on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Theories

Heo, Yeong-Do

Dept. of Management

(Received April 30, 1985)

〈Abstract〉

An attempt is made in this paper to survey systematically various publications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which concentrates a great concern in international business field in recent years.

The purpose of this survey is to suggest a guideline for the development of general theory on FDI and a starting point in developing a theory on the FDI of Korea through comparative approach to the various theories.

Since there is not one but a number of competing theories with varying degrees of power to explain FDI, they are treated in this paper as hypothesis.

The concluding observations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In case of the developed countries, the determinants of FDI seem to be consisted of firm-specific advantage, internalization advantage and location-specific advantage, and it seems that the representative hypothesis of this viewpoint is the "Eclectic Theory" developed by Dunning.

And for the FDI of developing countries, three types of hypotheses could be found. The first was to apply the theory developed for the advanced countries' FDI, and the second was to develop unique theory for the developing countries' FDI, and the third was to apply the modified form of advanced countries' FDI theory.

The basic framework of the above three hypotheses seems, however, very similar to that of the "Eclectic Theory." Therefore, I think that the viewpoint of "Eclectic Theory" can suggest the guideline for the development of a basic theory on the FDI of Korea.

1. 序 論

1. 概 要

海外直接投資(Foreign Direct Investment: FDI)⁽¹⁾는 지난 30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왔으며 오늘날 세계의 우수한 多國籍企業들의 最大의 關心事가 되고 있다.

世界 全體의 FDI 殘額 基準으로 보면 70年代에 약 1000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80年末에는 약 4500억 달러로 急増하였는데 이 중 大部分은 先進國 企業에 의한 것이었다. 美國 企業들의 경우 1980년에 海外에서 固定設備에 投資한 額數는 약 421억 달러로서 이는 같은 期間에 美國內 모든 企業들의 固定設備 投資額의 22.5%에 달할 程度였다.⁽²⁾ 그러나 最近에는 開發途上國 企業들에 의한 FDI도 해마다 增加하는 추세에 있으며 우리 나라 企業들도 70年代 이래 海外直接投資에 本格的인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83年 6月末 現在 件數로는 490件에 약 4억8십만달러 정도의 FDI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³⁾

이러한 추세에 관망하여 海外直接投資가 興해지는 理由 즉 海外直接投資의 決定要因에 관한 研究가 先進國을 中心으로 활발하게 전개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理論들은 海外直接投資라는 複雜한 現象을 各部分의 으로 밖에 설명하지 못했으며, 여러가지 形態의 海外直接投資를 完全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理論體系는 아직 未整理된 狀態이다. 1970年代 이후 海外投資의 환경이 더욱 복잡해지고 投資地域, 投資業種, 投資形態 등이 보다 多樣해짐에 따라 FDI 理論의 一般化는 더욱 어렵게 되어 가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海外直接投資는 오늘날 世界의인 多國籍企業들의 關心事이고 우리나라 企業들도 國際化의 過程上 반드시 거쳐야 할 分野이므로 어떤 형식으로든지 理論的인 體系를 세워야 할 것이며, 이러한 理論의 바탕 위에서 海外直接投資에 임하는 것이 試行錯誤를 줄일 수 있는 길이라 생각된다. 이를 위해 本研究에서는 우선 先進國들에서 開發된 FDI 理論들을 體系의 으로 分析, 整理해 보고 우리 나라와 같은 開發途上國에서의 FDI에 관하여 개발된 理論들도 開發적으로 살펴 봄으로써 우리 나라의 FDI를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理論의 開發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그러면 이러한 諸理論들을 살펴 보기에 앞서서 海外直接投資의 概念부터 파악해 보기로 하자.

2. 海外直接投資의 概念

海外直接投資를 定義하는 方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經濟學者들의 傳統的인 견해에 의하면 國際 資本移動의 한 형태라고 한다. 즉 國際間의 資本移動에는 直接投資와 間接投資의 두 가지 方法이 있고, 前者는 그 目的이 經營參加인 데 반하여 後者는 配當이나 利子收益의 획득에 目的이 있는 일종의 證券投資(Portfolio Investment)에 속한다는 것이다.

둘째, 國際經營學의 立場에서는 直接投資를 輸出의 相對概念으로 定義하고 있다.⁽⁴⁾ 企業의 國際去來는

(1) 이하 海外直接投資를 FDI라고 쓰기도 함.

(2) U.S. Department of Commerce, Survey of Current Business(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August, 1981.)

(3) 閔相基, "韓國製造企業의 海外直接投資," 「隣齊黃炳俊博士回甲紀念論文集」, 서울大學校出版部, 1984, p.845.

(4) 閔相基, 國際財務管理, 서울, 韓國放送通信大學出版部, 1982, p.155.

크게 나누어 完製品の 移動에 의한 것과 生産要素의 移動에 의한 것으로 나누어지는데 前者는 自國의 生産要素를 自國內에서 結合하여 製品の 상태로 去來하는 輸出入 活動을 말하며 後者는 또 두 가지로 分類해서 生産要素를 單獨으로(特히 資本이나 技術) 移動시키는 資本移動 技術移動과 自國의 生産要素인 資本, 生産技術, 經營技術 等を 結合하여 同時에 海外로 移轉하여 現地の 勞動, 土地 等과 結合하여 現地生産 및 販賣活動을 하는 경우로 두 번 째 경우를 海外直接投資라고 한다.

셋째, 投資活動의 主體 또는 方向에 따르면 海外直接投資는 投資國의 立場에서 본 것을 말하며 被投資國의 立場에서 볼 때는 「外國人 直接投資」라는 用語를 使用하는 것이 보통이다.

넷째, 海外直接投資 理論은 多國籍企業 理論으로 認識되기도 하는데 그 理由는 多國籍企業이 遂行하는 事業은 海外直接投資가 全部라는 前提下에 兩者는 같은 理論으로 파악되어 왔기 때문이다.⁽⁵⁾

그러나 다음 節에서도 살펴 보겠지만 海外直接投資가 多國籍企業의 活動 中에서 가장 重要한 部分일에는 틀림 없으나 多國籍企業은 그 以外에 貿易活動, 技術移轉, 海外間接投資 等の 事業活動도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海外直接投資는 多國籍企業에 의해서만 수행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海外直接投資 理論을 多國籍企業 理論과 同一視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다만 大部分의 海外直接投資가 多國籍企業에 의해 遂行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研究들에서 多國籍企業의 海外直接投資 活動만을 研究 對象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위와 같은 基本的인 觀點에 기초하여 學者들은 구체적으로 海外直接投資를 어떻게 定義하고 있는가를 살펴 보면 우선 Ragazzi⁽⁶⁾는 「海外企業에 대한 效率적인 統制權을 갖는 投資持分으로서 新設資, 利益金の 再投資 또는 現地金融을 통한 資金移動 뿐만 아니라 生産技術, 經營技術 等과 같은 投資도 함께 이루어지는 海外投資」라고 定義하고 있고 Kojima⁽⁷⁾는 「海外企業의 經營과 利益에 대한 統制權을 主目的으로 하는 資本移動 및 기타 多樣한 형태의 投資」라 하였으며, Root⁽⁸⁾는 「海外企業에 대해 統制權을 갖는 多國籍企業의 本社가 海外에서의 企業 活動에 필요한 一團의 要素集團(經營+資本+技術)을 「移轉시키는 企業擴張」이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Robock⁽⁹⁾은 「海外投資家가 單純한 포오트폴리오 投資와는 달리 經營意思決定에 대해 統制權을 가질 수 있는 資本投資」라고 定義하고 있다. 이상의 여러 學者들의 견해를 綜合하여 보건대 海外直接投資는 「海外的 被投資企業에 대한 統制權의 획득 및 經營參加를 目的으로 하는 投資로서 資本移動과 同時에 技術經營, 노우-하우 等이 複合적으로 移轉되는 것」이라 定義될 수 있겠다.

그런데 海外企業에 대한 統制權을 획득할 수 있을 정도의 持分이 어느 정도인가는 명확하게 말할 수 없다. 그 理由는 만약에 株式이 광범위하게 分散되어 있다면 經營意思決定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持分比率는 상당히 낮은 것이며 반대의 경우는 많은 比率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100%의 持分을 全部 所有하고 있다 하더라도 統制權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만약에 政府의 영향력이 絕對적이어서 株式 所有主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고 그 企業의 製品 種類와 價格 水準을 지시하며 收益의 配分方式을 決定한다면 그 企業의 統制權은 政府에 있는 것이지 株式 所有主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처들은 自國內에서 活動하고 있는 外國人 投資者에 대해 現地 政府들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政策手段들이며 持分所有者들의 經營權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력이 政府만 있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企業體의 運營에 필요한 資源들을 企業所有主가 統制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資源에 대한 統制權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 資源은 從業員일 수도 있고 기타 여러가지 物的 資源일 수도 있다.

(5) 鄭承鉉, 國際經營學, 서울, 法文社, 1984.

(6) Giorgio Ragazzi, "Theories of Direct Foreign Investment," Sang Kee, Min, Redings in Multinational Enterprise, p.223.

(7) K. Kojima, Direct Foreign Investment, Praeger, New York, 1978, p.12.

(8) Franklin R. Root,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5th Ed., South-Western Publishing Co., Cincinnati, Ohio, 1984, pp.427,432.

(9) Stefan H. Robock, Kenneth Simmonds, Jack Zwick, International Business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 Richard D. Irwin Inc., U.S.A. 1977, p.37.

(10) John D. Daniels, Ernest W. Ogram Jr., Lee H. Radebaugh, International Business Environments and Operations, 3rd Ed., p.52.

이상과 같이 直接投資를 식별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각국 政府에서는 임의로 直接投資에 대한 基準을 정하고 있다. 美商務省은 美國人, 美國法人 또는 美國企業의 海外支社가 外國企業 持分の 10% 以上을 所有하고 있는 경우⁽¹¹⁾를 海外直接投資라 하고 있으며, 日本의 경우에는 日本側の 資本參與가 25% 이상이거나 經營의 統制를 可能하게 하는 任員の 派遣, 製造技術이나 原材料, 投入物の 提供, 財政的 援助等 多様な 형태의 投資도 直接投資에 포함시키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海外直接投資의 要件을 投資者, 投資方法, 投資業種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데 最少持分比率은 50% 以上을 原則으로 하나 實質的인 經營통제권이 있는 경우는 例外로 하고 있다.⁽¹²⁾

3. 多國籍企業과 海外直接投資

海外直接投資는 多國籍企業(Multinational Corporation: 以下 MNC라함)의 活動中 가장 特徵的인 分野라 할 수 있다. 따라서 FDI가 世界的으로 盛行하게 된 것도 多國籍企業이 本格的으로 登場하게 된 1950年代 以後의 일 수 있으며 그 초창기에는 주로 美國과 英國의 多國籍企業이 中心이 되었다. 이와 같은 多國籍企業은 어떻게 定義하느냐에 대해서는 學者들 間에 異論이 많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3가지 視點을 綜合한 見解가 支配的이다.

(1) 여러 개의 서로 다른 國家에 所在한 自社의 支社를 통해서 海外生産 및 기타 企業活動을 수행하고 있는 本社 또는 母企業,⁽¹³⁾

(2) 위와 같은 支社의 여러가지 經營政策 樹立에 直接的인 統制機關을 가지고 있는 本社,⁽¹⁴⁾

(3) 生産, 마케팅, 財務 및 기타 企業 機能的 側面에서 國際間에 포괄한 戰略을 設計하고 實行하여 점차 地球中心的(Geocentric)인 態度를 갖는 企業.⁽¹⁵⁾

이러한 性格을 가진 多國籍企業은 그 독특한 企業 시스템을 利用하여 주로 製品 및 生産要素(資本, 技術 및 經營 know-how)의 國際間 移動을 담당하고 있다.⁽¹⁶⁾ MNC가 國際間的인 製品移動을 담당하는 理由는 그 첫째가 MNC의 性格上 그들의 最終製品에 대한 市場을 世界속에서 찾아야 하며 둘째로, 그들의 製品을 가장 有利한 條件으로 生産할 수 있는 生産立地를 또한 世界속에서 찾아야 하고 셋째로, 그러한 製品 生産에 필요한 投入要素(原材料, 部分品, 資本財)를 世界 속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MNC는 海外直接投資를 수행함으로써 國際間的인 資本移動을 매개하는 主要 機構로서의 役割도 遂行하고 있다. 이때 海外直接投資라 함은 證券投資(portfolio investment)와는 달리 國境을 넘어서 企業 活動을 확장 할 때 總體的으로 必要한 一團의 要素集團을 移轉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그 行爲의인 側面에서 보면 海外直接投資는 MNC가 海外에서 支社를 設立하고 運營할 때 수행 하는 모든 活動을 다 포괄 하는 概念이라 하겠다.⁽¹⁷⁾

또한 MNC는 直接投資를 통해 現地國에서 生産 및 販賣活動을 遂行함으로써 技術革新을(Technological Innovation) 移轉시키는 役割을 遂行하고 있다. 이는 國際間的인 傳統的인 技術移轉 方式이었던 技術知識(Technical Knowledge)의 移轉 즉 라이선싱(Licensing), 貿易, 技術關係出版物, 技術援助 等과 같은 技術模倣에 의한 方法과는 다른 새로운 技術移轉方式이라 하겠다. MNC는 技術에 관하여 研究開發, 生産活

(11) U.S. Department of Commerce, U.S. Direct Investment Abroad,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ington D.C., 1981, p.2.

(12) 外換管理規程, 第15-4, 15-5, 15-6. 그외의 國家로 프랑스는 20%, 일본 25%, 캐나다 50% 를 最少持分比率으로 하고 있다.

(13) Raymond Vernon, Sovereignty at Bay, Basic Books, N.Y., 1971, p.4.

(14) Jack N. Behrman, Some Patterns in the Rise of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1969, p.63.

(15) Howard V. Perlmutter, "The Tortuous Evolution of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Columbia Journal of World Business (Jan-Feb, 1969), pp.9-18. Perlmutter는 국제기업의 종류를 最高經營者의 態度를 中心으로 3가지로 分類했다. 그 첫째는 自民族中心的(Ethnocentric) 態度로써 企業의 組織이나 經營面에서 本國中心的인 企業을 말하며, 둘째는 現地國을 中心으로하는 多民族中心的(Polycentric)企業, 그리고 國籍에 구애됨이 없이 여러가지 政策을 구성하고 實行하는 地球中心的(Geocentric) 態度의 企業 等이다.

(16) Franklin R. Root, op. cit., pp.426-449.

(17) 狹義의 海外直接投資는 單純한 國際間的인 資本移動만을 의미한다. 즉 海外企業의 總持分中 몇 % 이상을 所有하고 있으나 이의 海外直接投資를 數值的으로 파악하는 경우라 하겠다.

動, 마케팅活動 및 市場調査活動과 같은 일련의 活動을 國際的인 次元에서 遂行함으로써 單純히 模倣에 의한 技術移轉이 안고 있는 革新的 傳播를 制限하는 事業的 罅(gap)을 補正시켜 준다.

다시말하면 MNC가 遂行하는 가장 독특한 役割은 經營技術(Management know-how)의 國際間 移轉이다. 經營技術이라 함은 自然資源, 資本, 勞動 및 技術을 結合하여 現地에서의 生産 및 販賣活動이 可能하도록 해주는 技術을 말하며, 이러한 技術의 移轉이야말로 MNC가 遂行할 수 있는 特有의 役割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側面 때문에 MNC는 그 명칭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한 國家로부터 다른 國家로 企業을 移轉시키는 役割을 遂行 한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

以上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多國籍企業의 活動 內容을 國際間的 製品移動, 資本移動, 技術革新的 移轉, 經營技術의 移轉 등으로 細分해 볼 수 있으나 이 모든 活動들은 앞節에서 定義한 海外直接投資의 概念 속에 다 포함되는 活動이라 볼 수 있겠다. 왜냐하면 海外直接投資는 單純히 配當이나 利子收益을 目的으로 하는 投資가 아니라 投資하는 企業의 經營에 直接 參加함을 目的으로 하는 投資이며, 自國內의 生産要素인 資本, 生産技術, 經營技術 등을 現地로 移轉하여 그 나라의 生産要素인 勞動, 土地 등과 결합하여 現地 生産 및 販賣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海外直接投資 理論을 研究하는 많은 研究者들이 그 主要 研究 對象으로 多國籍企業을 選定하고 있는 것이다.

4. 海外直接投資 理論의 體系

多國籍企業이 本格的으로 登場하기 前 즉 二次 世界大戰 前에는 海外投資의 大部分이 間接投資였고 直接投資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따라서 이 時期에는 海外直接投資에 관한 별도의 理論이 存在하지 않았고 다만 傳統 經濟學의 理論的 틀 속에서 國際資本 移動의 一般理論으로서 說明 되었다.

이 理論에 의하면 國際間에 資本이 移動되는 것은 資本의 限界生産性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른 말로 表現하면 資本은 그것이 풍부한 國家로부터 不足한 國家로 또는 資本에 대한 收益率(Rate of Return)이 낮은 國家로부터 높은 國家로 移動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最近에 들어와서는 直接投資에 動員되는 資本의 規模 및 그 移動 速度가 대단히 빨라졌으며, 그 移動樣相도 매우 複雜해져 과거와 같은 資本 移動의 一般理論으로서의 說明할 수 없는 部分이 상당히 많아졌다.

예를 들어 美國企業들이 유럽地域에 大規模 直接投資를 하고 있는 同時에, 유럽 企業들도 美國에 방대한 直接投資를 하고 있다는 事實은 傳統的인 資本移動 理論으로서의 說明할 수 없는 現象이라 하겠다. 더구나 多國籍企業이 世界經濟에서 重要な 比重을 차지하게 되고 이들에 의한 海外直接投資는 資本移動에 수반하여 生産技術 및 經營技術까지도 함께 移動되는 새로운 양상을 보임에 따라 資本移動 理論은 더욱 더 그 說明力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에 經濟學者들은 多國籍企業의 役割까지 認識할 수 있는 理論을 開發하기 위해 그들의 傳統理論에 대한 擴張을 시도하게 되었고 여기서 國際經營學的인 理論과의 연관關係를 맺게 되어 國際間的 資本移動에 대한 巨視理論과 微視理論의 統合研究가 進行되게 되었다.

그러면 海外直接投資 理論이 說明해야 할 現象은 무엇이며 해결해야 할 根本的인 問題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F. R. Root는 다음과 같이 海外直接投資 理論이 다루어야 할 內容을 提示하고 있다.⁽¹⁸⁾

첫째, 企業이 直接投資家로서 海外에 進出하는 理由는 무엇인가?

둘째, 海外 現地企業들은 直接投資 企業들에 비해 보다 친밀한 企業 環境 속에서 活動할 수 있다는 根本的인 有利點을 가지고 있는데, 直接投資 企業들이 이들과의 競爭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떤 優位點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가?

셋째, 企業들이 海外에 輸出이나 라이선싱에 의하지 않고 現地生産이라는 方法으로 進出하는 理由는 무엇인가?

이러한 세 가지 根本的인 問題에 대한 說明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4가지 問

(18) Franklin R. Root, Op. Cit., pp. 455-456.

題에 대해서도 說明을 대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첫째, 寡占的 市場에서 大規模 企業들이 海外直接投資를 支配的으로 하고 있는 理由는 무엇인가?

둘째, 어떤 産業에서는 海外直接投資가 이루어지나 어떤 産業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理由?

셋째, 同一한 兩國 및 産業 分野에서 逆投資(reverse investment)¹⁹⁾가 發生하는 理由?

넷째, 특히 美國을 中心으로 한 몇몇 國家들만이 海外直接投資의 源泉이 되고 있는 理由는 무엇인가?

이러한 問題들은 傳統的인 國際經濟理論인 貿易理論이나 國際資本移動 理論으로는 說明할 수 없는 독특한 것들이다. 이러한 問題에 대한 解答을 구하기 위해 海外直接投資 理論이 여러가지 領域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어떤 하나의 理論이 FDI의 動機에 대해 모두 다 說明해 주고 있지는 못하다. 즉 많은 理論들이 相互補完的인 性格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어떤 理論이 다른 理論과 競合關係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本研究에서 試圖한 것은 이러한 研究者가 展開된 흐름 및 主要 內容에 관해 體系的인 考察을 함으로써 海外直接投資에 관한 一般理論의 定立에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그 중간의 모든 理論들을 網羅하기 보다는 FDI 理論의 發展過程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볼 수 있도록 理論들을 일정한 體系로 分類하고 그 分類에 의해 主된 理論들만 檢討했다는 것은 우선 삼각 구경지 한다. 海外直接投資에 관련된 理論들은 수없이 많고 그 說明力 또한 각기 相異하며, FDI에 관련된 統計資料의 여러가지 制約 때문에 實證分析이 어렵거나 制限된 實證分析만 가능한 理論들도 많다. 따라서 本研究에서는 分析의 편의상 이들을 4가지 假說集團으로 分類하여 考察하기로 한다.

海外直接投資에 관한 主要假說

區 分	主 要 假 說	主 要 研 究 者
1. 完全競爭市場을 假정한 假說	① 投資收益率 差異假說 ② 포오트폴리오 假說 ③ 市場規模假說	Popkin (1965), Reuber et al (1973) Bandiera & White (1968), Hufbauer (1975) Stevens (1969), Prachowny (1972) Cohen (1975) Blais (1975), Ragazzi (1973) Kwack (1972)
2. 市場 不完全性을 假정한 假說	① 獨占的 優位 假說 ② 行爲 假說 ③ 製品 循環 假說 ④ 寡占的 競爭假說 ⑤ 內部化 假說 ⑥ 折衷理論	Hymer (1960) Kindleberger (1969) Aharoni (1966) Vernon (1966) Knickerbocker (1973) Flowers (1975) Buckley & Casson (1976) Rugman (1981) Caves (1982) Magee (1977) Dunning (1981)
3. 投資性向의 差異에 기초한 假說	① 流動性 假說 ② 通貨地畧差異 假說 ③ 巨視經濟的 接近 假說	Barlow & Wender (1955) Severn (1972) Brash (1966) Aliber (1979) Scaperlanda (1974) Kojima (1973), Ozawa (1979)
4. 開發途上國의 FDI에 대한 假說	① 折衷理論의 適用 ② 開發國의 독자적 理論 ③ 先進國理論의 修正適用	Wells (1977) Lecraw (1981) Agarwal (1981) Kojima (1973) Ozawa (1979) Giddy and Young (1982)

II. 海外直接投資의 決定要因에 관한 先進國理論

1. 完全競爭市場을 假정한 假說

(1) 完全競爭市場의 成立要件

(19) 逆投資의 例를 들면 美國企業이 유럽 國家에 直接投資를 한다 同時에 유럽 國家들도 같은 産業分野에서 美國에 直接投資를 하는 경우이다.

完全競爭市場이란 去來되는 商品의 完全한 同質性이 보장되고, 多數의 企業이 參與하여 어느 한 企業이 市場價格에 影響을 미칠 수 없어야 하며, 同質 産業分野에 企業들이 自由롭게 進入, 離脫할 수 있고, 市場에 關係하는 消費者와 企業家들이 完全한 情報을 가지고 행동하는 市場이라 定義된다.⁽²⁰⁾ 이러한 完全競爭市場 下에서는 價格機構의 自動調節作用에 의해 資源配分이 效率의으로 이루어지며, 파레토最適(pareto optimum)이 達成된다고 한다. 파레토 最適이란 經濟의 厚生의 極大化 基準으로서 「他人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서는 어느 한 사람도 더 잘 살게 할 수 없을 程度로 資源이 잘 利用되고 있는 狀態」를 말한다.⁽²¹⁾ 이러한 狀態下에서는 모든 企業이 利潤을 極大化하려 하고 모든 消費者는 效用을 極大化하려고 한다.

위와 같은 完全競爭市場의 概念은 國際的 部門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즉 國際市場이 完全競爭의으로 作用한다면 모든 國家 去來는 市場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價格機構에 의해서 資源이 效率의으로 配分된다. 이러한 假定下에서는 自由貿易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各國은 相對的인 比較優位에 따라 生産에 專門化 하게 된다.

國際貿易理論을 代表하는 헤커-올린(Heckscher-Ohlin) 모델은 이와 같은 完全競爭市場을 假定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델에서는 各國의 比較優位를 賦存資源(factor endowment)의 國家間 差異로써 說明하고 있다. 즉 勞動力이 相對的으로 풍부한 나라에서는 勞動集約的인 商品을 낮은 生産費로 生産하고 他國에 輸出하며, 資本이 相對的으로 풍부한 나라에서는 資本集約的인 商品을 輸出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때 헤커-올린 모델이 前提로 하고 있는 基本假定은 다음과 같다.⁽²²⁾

① 모든 生産要素의 完全願備 ② 實物財貨의 國家間 移動에서 輸送費 및 다른 移轉費用의 不在 ③ 同質的인 生産要素의 固定供給 ④ 完全競爭市場 ⑤ 技術革新의 不在 및 그로 인한 他國에서의 同一한 生産函數 ⑥ 國家間 生産要素의 完全한 不移動, 이러한 自由貿易의 狀態下에서는 各國의 商品을 가장 값이 싼 나라에서 輸入할 수 있고, 또한 自己 商品을 가장 값이 비싼 나라에 輸出할 수 있어서 消費者와 生産者 모두에게 利益이 되며, 各國은 比較優位 産業에 特化하게 되어 國際的인 資源의 效率性을 증가시키게 된다.

以下에서는 國內市場에 있어서 生産要素 및 製品에 관하여 完全競爭市場을 假定하고 海外直接投資理論을 展開하고 있는 4가지 假說을 살펴 보기로 한다.

(2) 投資收益率 差異 假說

이 假說에 의하면 海外直接投資는 資本의 投資收益率이 國家마다 差異가 나기 때문에 發生한다고 한다. 즉 FDI는 資本 한 單位當의 投資收益率이 낮은 國家에서 높은 國家로 흘러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理論은 限界收益과 限界費用이 일치하는 점에서 企業은 最大의 利益을 얻을 수 있다는 限界理論家들의 理論을 受容하여 企業의 目標은 利益을 極大化하는데 있다고 보는 傳統的인 投資理論으로부터 導出된 것이다.

이러한 假說을 統計的으로 檢證하기 위한 試圖가 많이 행해졌으나 몇몇 경우에는 이 假說을 部分的으로 또는 全體的으로 支持해 주기도 했지만 大部分의 경우 FDI의 흐름과 投資收益率의 國際的 差異間에 어떤 뚜렷한 關係를 발견해 내지 못하였다. 예를들어 Popkin⁽²³⁾은 어떤 企業의 國內投資對 FDI의 比率과 國內利益對 海外利益의 比率 間에는 統計的으로 有意한 相關關係가 있다는 것을 發見하였다. 그러나 Reuber 등은⁽²⁴⁾ 單純回歸分析에 의하여 1956~1969年을 對象으로 美國의 製造業體가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인도, 멕시코, 필리핀 等지에서 행한 投資에 대해 分析해 본 결과 1年이라는 時差를 두었을 때 投資收益率과 正의 相關關係가 있었으나 5%의 信賴水準에서 統計的으로 有慮했던 것은 단 두 경우 뿐이었다.

또한 1968年에 Bandera와 White⁽²⁵⁾는 美國이 西유럽에서 1953~1962年 동안 행한 投資에 대해 檢證해 보았으나 收益率差異에 대한 假說은 증명하지 못했고 다만 收益率이 適切하게 保障된다는 것이 資本移動의

(20) 朴拱立, 現代經濟學論, 經世院, 서울, 1982, p.150.

(21) 파레토最適에 관하여 보다 상세한 것은 李鶴容, 微視經濟理論, 서울, 泰山出版社, 1979, pp.334-343. 參照.

(22) F. R. Root, Op. Cit., (1984), p.228.

(23) Popkin, J., "Interfirm Differences in Direct Investment Behavior of U.S. Manufactures." Ph. D. Diss.,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65.

(24) Reuber, Grant, H. Crockelle, M. Emersen and G. Gallias-Hamono "Private Foreign Investment in Development," Development Centre of the OECD, Oxford, 1973.

(25) Bandera, Vladimir N., and Joseph T. White, "U.S. Direct Investments and Domestic Markets in Europe." *Economia Internazionale*, Vol. 21, Genova, 1968.

前提條件이 된다는 것만 發見 하였다. Hufbauer⁽²⁶⁾도 1975년의 海外 및 國內에서의 資産增加比率와 海外 및 國內의 投資收益率 사이에 매년 나타나는 差異에 대해서 1955~1970년을 對象으로 調査를 했으나 아무런 關係도 發見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假說이 1950年代에 인기를 끌었던 理由는 제 2次 世界大戰 以前에는 海外投資가 主流가 높은 投資收益率을 目標로 하는 間接投資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1950年代에는 美國의 海外投資가 유럽지역으로 급격히 進出하고 있었으며 서유럽 지역에서 이들이 얻은 收益率은 美國內에서의 收益率보다 훨씬 높았었다. 따라서 資本의 限界生産力 즉 投資收益率 差異에 의해 國際間 資本移動을 說明하는 傳統的인 國際資本移動理論으로 그 說明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960年代 以後의 FDI는 資本移動에 수반하여 技術 또는 經營技法까지도 함께 移動되는 새로운 形態의 投資現象이어서 傳統的인 資本移動理論으로는 理論的 說明이 어려웠다.

그 첫번째 弱點은 이 당시에는 서유럽에서의 收益率이 美國內에서의 收益率보다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美國의 海外投資는 지속되었다는 事實에 있었다. 이와 같은 事實은 投資家들(특히 MNC 들)이 經營 利益을 極大化 하니까 한다는 基本的인 假定에 의해서는 說明 하기 어려운 것이다. MNC는 어떤 特殊한 投資에 대해서는 國內市場에서 보다 높은 規模의 經濟를 達成하기 위하여 낮은 收益率에도 불구하고 海外投資를 수락할 수도 있으며, 海外市場에서의 競爭者의 參入을 防止하기 위해서 또는 海外에서의 競爭者의 움직임을 위한 對應策으로 海外投資를 택할 수가 있다.

傳統的 投資收益率 假說의 두번째 弱點은 完全競爭을 假定하고 있다는 데 있다.⁽²⁷⁾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國際部門에서 完全競爭을 假定하면 自由貿易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生産要素의 國際間 移動은 없어야 하며, 完製品의 移動에 전혀 費用이 따르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이와같은 自由貿易은 여러가지 市場不完全性으로 인한 市場失敗 때문에 모든 國際去來의 手段이 되지 못한다. MNC는 이러한 市場의 不完全性에 반응하여 市場去來 즉 輸出이나 라이선싱(Licensing)에서 發生하는 去來費用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들 去來를 內部化할 수 있는 FDI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1960年代 以後의 海外直接投資는 市場이 完全競爭적이라면 發生할 수 없는 市場不完全性의 産物이다.

投資收益率 假說의 세번째 弱點은 同一한 産業內에서 國家 혹은 經濟그룹 間에 相互投資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해 說明을 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여러가지 限界點에도 불구하고 投資收益率 差異 假說은 海外直接投資에 대한 巨視經濟的 分析의 기초를 마련해 주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으며, 本格的인 海外直接投資 理論의 出發線으로서 價値를 肯定 받고 있다.

(3) 포트폴리오 假說(Portfolio Hypothesis)

포트폴리오 假說에 의하면 投資家들은 投資收益率 뿐만아니라 그들의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危險要素도 고려한다고 한다. 즉 海外直接投資는 投資收益率에 正比例하고 危險程度에 反比例 한다는 假說이다. 이 假說은 1930年代의 國際資本移動을 研究하던 初創期 學者들에 의한 것이지만, 그 理論的 들의 형성은 1950年代에 Tobin⁽²⁸⁾과 Markowitz⁽²⁹⁾에 의해서였다.

Tobin과 Markowitz의 포트폴리오 選擇理論은 비록 어떤 國家內에서의 證券收益은 일정한 時間이 지나면 같은 方向으로 變化된다고 하여도 그들 사이의 相關關係는 완벽하지 않다는 觀察結果에 基礎를 두고 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多角化하는 것이야말로 全體 收益을 증가시킬 준다고 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相關關係는 國家間에는 매우 적거나 전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理論에 대한 實證分析은 國際 포트폴리오 選擇에 관한 많은 研究들에서 행해진 바가 많았다.⁽³⁰⁾ 反面에 FDI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주

(26) Hufbauer, G.C.,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and Direct Investments." In: Peter B. Kenen (Ed.), International Trade and Finance. Cambridge, 1975.

(27) Franklin R. Root, op. cit., p.520.

(28) Tobin, James, "Liquidity Preferences as Behavior Towards Risk,"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25, Cambridge, 1958, No. 2, pp.65-86.

(29) Markowitz, Harry M., Portfolio Selection: Efficient Diversification of Investments, New York, 1959.

(30) 그 代表的인 學者들은 Grubel (1968), Lee, C.H. (1969), Miller and Whitman (1970), Levy and Sarnat (1970)

적용 되지는 않았다. Markowitz-Tobin의 理論을 FDI에 適用시킨 소수의 經濟學者들은 Stevens, Prachowny, Cohen, Blais 등이 있다.

Stevens의 實證研究⁽³¹⁾는 라틴아메리카에 限定된 것이었다. 그에 의하면 이 地域의 全體 直接投資에 對해서는 포오트폴리오 假說이 어느 정도 適用될 수 있는 경험적 증거가 있으나, 國家 水準에서는 그 증거가 거의 없으며 오히려 다음에서 說明하게 될 產出水準 假說이 說明力이 우수하다고 한다.

Prachowny는⁽³²⁾ 美國에 進出한 FDI 및 美國이 海外에서 행한 FDI에 關하여 研究한 結果 이 假說을 支持하는 보다 많은 경험적 증거를 發見해 내었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研究 對象은 아주 적절한 것이었다고 보기 힘들고 또한 FDI의 說明變數로 選定한 危險條件의 有意性도 의문스러웠다. Cohen의⁽³³⁾ 統計的 結果는 이 假說을 상당히 뒷받침해 주고 있는데, 폭넓은 海外製造活動을 하고 있는 美國 大企業들은 1960年代에 그들의 海外營業의 結果 얻은 利益 및 賣出額에 별로 큰 변동은 겪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의 같은 結果가 다른 目的으로 企業이 취한 行動들의 예기치 않았던 結果일 수도 있다고 하였다.

Blais는⁽³⁴⁾ 이 假說을 캐나다와 英國이 美國製造業에 投資한 FDI에 對해서 調査해 본 바 있는데, 1950~71年 동안 캐나다의 경우는 危險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英國이 행한 投資에 對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發見하였다. 그러나 Blais의 結果에 나타난 國家間 差異 中에서 얼마만큼이 統計的인 不一致로 인한 것이며 또한 얼마만큼이 캐나다와 英國의 投資家들의 行動 差異 때문인지 파악해 내기는 어렵다.

全般的으로 볼 때 포오트폴리오 假說에 대한 경험적 증거는 빈약한 듯 하다. 그러나 Prachowny가 말했듯이 이 假說의 長點은 一般화될 수 있는 可能性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이 假說은 國家間 및 産業間에 일어나는 交叉投資(Cross Investment)에 對해 投資收益率 假說처럼 確實性的 假定을 使用하지 않으면서⁽³⁵⁾ 그럴듯한 說明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反面에 포오트폴리오 假說이 說明해 주지 못하는 部分은 왜 MNC가 FDI의 가장 큰 擔當者이며, 왜 그들은 장차 地域的, 地理的인 그들의 포오트폴리오를 多角化 시켜줄 수 있는 포오트폴리오 投資 보다는 直接投資를 선호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이에 對해 證券市場 不完全性 理論을 主張했던 Ragazzi는⁽³⁶⁾ 포오트폴리오 投資보다는 FDI를 選好하는 理由는 證券市場의 非效率性에 기인한다고 했다.

예를 들면 많은 開發途上國들에는 組織화된 證券市場이 없다. 따라서 이들 國家에서의 資本의 흐름은 단지 FDI의 形態로만 일어나게 된다. 유럽 證券市場조차도 그 規模가 작고 企業의 營業結果와는 동떨어지게 變化가 심하다는 意味에서 非效率的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서 少數의 포오트폴리오 投資家들에게 企業의 營業活動속에서 內在된 産業危險보다 훨씬 더 큰 危險負擔을 안겨주게 된다. 그러나 Ragazzi의 주장대로 FDI가 포오트폴리오 投資의 代用品이라면 MNC의 支社들은 그들의 母企業보다 多角化될 수 있을 것이지만 실제로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³⁷⁾

포오트폴리오 假說의 또하나 短點은 企業體들의 海外投資 性向에 差異가 나타나는 것을 說明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어떤 産業體는 다른 産業體 보다 더 國際 指向的인데 이러한 差異는 危險이나 收益으로 는 說明되지 않는 것이다.⁽³⁸⁾

(4) 賣出規模 假說 및 市場規模 假說

등이 있다.

(31) Stevens, Guy V.G., "Fixed investment Expenditure of Foreign Manufacturing Affiliates of U.S. Firms, Yale Economic Essays, Vol. 9, 1969.

(32) Prachowny Martin F.J., "Direct Investment and the Balance of Payments of the United States," New York, 1972.

(33) Cohen Benjamin, Multinational Firms and Asian Exports. New Haven, 1975.

(34) Blais, Jeffrey P., A Theoretical and Empirical Investigation of Canadian and British Direct Foreign Investment in Manufacturing in the United States, Ph. D. Diss., University of Pittsburgh, 1975.

(35) 投資收益率 假說에서는 國家間 또는 産業間의 交叉投資는 說明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FDI의 確實한 動機가 投資收益率 差異 즉 企業은 極大利潤을 추구하는 것이 명확한 그들의 目標라는 假定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36) Ragazzi, Giorgio, "Theories of the Determinants of Direct Foreign Investments." IMF Staff Papers, Vol. 20, Washington 1973, pp.471-496.

(37) Hennart, Jean F.M.A., "A Theory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Ph. D. Diss. University of Maryland, 1977.

(38) Hufbauer, Op. Cit.

이 두 假說은 각각의 表面과 裏面の 關係와 같은 性格을 가지고 있다. 賣出規模 假說(Output Hypothesis)은 經濟的 現狀의 一을 假說로서 이미 企業의 FDI는 現地國에서의 賣出額과 正比例 關係에 있다는 것이며 市場規模 假說은 面觀의 觀點에서 본 假說으로, 여기에도 역시 FDI는 產出(output) 또는 賣出(sales)의 兩數라고 假定하여 이러한 賣出 또는 產出規模는 現地國의 市場規模에 의해 間接적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 市場規模의 一을 指標로는 보통 現地國의 GDP나 GNP로 使用할 수 있다는 假說이다.

이 두 假說의 論理의 근거는 企業들이 國內에서의 投資規模를 決定할 때에는 그들의 賣出額 規模를 고려하여 意思決定을 하며, 一國의 國內投資 規模는 그 國家의 GDP 增加에 의해 決定된다고 하는 것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리하여 이 假說의 理論的 모델은 新古典學派의 國內投資理論으로부터 나오게 되는데 그 중 가장 著名한 것은 Jorgenson의⁽³⁹⁾ 모델이다. 그러나 市場規模 假說에 대한 研究들은 大部分 그 假定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理論的 모델의 目的函數에 대해서 明確하게 表示를 하지 않자 때문에 그들의 Output 假說에 對한 研究들로서 똑같은 理論的 背景을 가진 것인지 분간하기가 힘든 경우도 많다. 또한 市場規模 假說에 대한 많은 研究들은 FDI와 現地國의 市場規模 사이의 關係 設定에 보다 많은 關心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런 關係의 理論的인 基礎를 研究하는 때에는 몇 點을 보고 있다.

따라서 이런 特殊한 研究의 경우 이것이 完全市場假定에 입각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러나도 불구하고 賣出規模 假說과 市場規模 假說을 完全競爭市場 假說의 框架에 포함시켜 論議하고 있는 것은 이들의 공통된 論理가 完全競爭市場 假定에 해당한다는 관행 때문이다. 이 두 假說 中間에서 賣出規模 假說이 보다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 理由는 보다 엄격한 理論的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市場規模 假說은 過去 20~30年 동안에 檢證된 바 있는 FDI 理論들 중에서 가장 인기있는 것이었다.

Jorgenson의 國內投資 모델을 FDI에 적용시킨 사람으로는 우선 Kwack⁽⁴⁰⁾을 볼 수 있다. 그는 1960~1967年 동안의 美國 FDI를 分期別로 分析한 결과 FDI의 흐름은 美國 非銀行 企業들이 海外에서 生産한 產出額의 價格, 相當을 제외한 現金흐름, 美國의 利率率 등에 달려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Stevens⁽⁴¹⁾ 美國으로부터 아프리카, 브라질 및 페루, 콜롬비아로 흘러간 FDI의 흐름과 이들 國家에서 美國企業이 製造業 部門의 達成한 販賣實績(1957~1965) 사이에는 統計적으로 有意한 相關關係가 있음을 밝혀 보았다. 그리고 Bandera와 White⁽⁴²⁾ EEC 國家에서의 美國의 FDI와 그들의 所得(GNP) 사이에는 有意한 相關關係가 있음을 발견하였고, 投資家들이 그들의 海外投資에 대해 부여하는 重要한 動機는 다음과 같이 要約될 수 있다고 結論 지었다. 즉 “現地國의 GNP 增加率이라는 觀點에서 본 때 점차 확장되는 市場에 침투하고자 하는 欲望”이 投資家들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던 FDI의 決定要素가 市場規模나 아니면 市場規模의 成長率이라는 問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研究들이 있었다. 이러한 研究들로부터 결론을 내리는 結論은 그들의 基本的인 假定, 資料, 方法論, 變數의 定義 等等에 있어서의 差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大部分의 研究者들이 FDI와 海外支社의 賣出額 또는 現地國의 市場規模 사이의 從屬的 關係를 支持하고 있으며 이 關係가 쉽사리 否認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關係를 解釋함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바 그 理由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두 假說은 모두 新古典學派의 國內投資理論에 대한 假定에 입각하고 있다. 그러나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新古典學派의 投資理論은 상당히 非現實的인 假定을 많이 하고 있다.

둘째, 現地國의 市場規模나 成長率은 FDI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때 FDI는 現地國의 國內市場을 위해 投資되는 것을 말하는 輸出을 위해 投資되는 FDI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大部分의 市場規模假說에 대한 研究에서는 적어도 統計的인 理由로 해서라도 여러가지 형태의 FDI를 구별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그렇지 못하고 있다.

(39) Jorgenson, Dale W., "Capital Theory and Investment Behavior"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3, Evanston, 1963.

(40) Kwack, Sung Y., "A Model of U.S. Direct Investment Abroad; A Neo-classical Approach," Western Economic Journal, Vol. 11, 1972.

(41) Stevens, Guy V.C., U.S. Direct Manufacturing Investment in Latin America: Some Economic and Political Determinants (MID Research Paper), 1969.

(42) Bandera, Vladimir N. and Joseph T. White, Op. Cit.

셋째, GDP 成長과 FDI 사이에는 상호관련성이 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서 發見되는 統計的 關係가 그 둘 사이의 構造的인 相關關係를 그렇게 많이 反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⁴³⁾

넷째, 賣出規模 假說에서는 國內投資 理論에서와 마찬가지로 現地國에서 工場이나 設備에 投資된 部分만 對象으로 하여야 하나 FDI에 관한 統計 속에는 財務資產, 在庫資產 等도 포함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을 工場이나 設備投資와 同一視 함으로써 結果를 왜곡시키고 있을 수도 있다.

다섯째, 賣出規模 假說을 檢證하기 위해 使用되는 賣出額 統計는 帳簿上的 資料로 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報告된 利益資料의 여러가지 問題點과 같은 問題點이 여기에도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최초의 FDI의 追加的인 FDI에 대한 意思決定은 서로 다른 基準에 의해 내려질 것이라는 點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 점에 대해 Barlow 와 Wender는⁽⁴⁴⁾ 海外에서 收益을 얻는 것은 企業體들에게 있어서 도박을 해서 돈을 버는 것과 흡사하며 새로운 FDI로부터 利益을 얻는 것은 도박보다 더 기회가 적을지도 모른다고 主張하였다. 그리고 現地企業으로부터 얻어지는 海外利益은 “노름판의 돈” 처럼 企業이 완전히 크게 成長하거나 아니면 파산할 때까지 利益의 一定比率은 계속 現地經營에 投資된다고 하였다.⁽⁴⁵⁾

2. 市場의 不完全性을 基礎로한 假說

市場이 完全競爭의 이라던 國際間的 去來는 輸出이나 라이선싱과 같은 市場去來를 통하여 이루어 진다. 그러나 現世界經濟는 많은 自然的 및 人爲的 市場不完全性으로 인하여 市場失敗의 狀態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輸出이나 라이선싱이 모든 國際去來의 手段이 되지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市場에 어떤 不完全성이 介入되면 상당한 企業費用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輸出을 방해하는 關稅 및 稅金과 같은 貿易障壁으로 인하여 輸出에 따른 각종 附帶費用이 發生하고, 라이선싱의 경우에도 一定 時間이 지나면 그 對象이 公共財와 같은 價格으로 되어 버리기 때문에 더이상 라이선싱의 對象으로 될 수 없게 되어 버린다.

이와 같은 市場失敗를 利用하거나 回避하기 위하여 企業은 海外直接投資를 하게 되고⁽⁴⁶⁾ 海外直接投資는 海外로의 生産設備의 移轉이며, 그 結果 一國企業은 多國籍企業으로 된다. 이와 같이 볼 때 多國籍企業은 市場不完全性의 產物이라 할 수 있으며, 自由貿易과 같은 最善의 解決策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次善의 解決策으로서 등장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海外直接投資의 發生條件은 市場不完全性이며, 海外直接投資는 市場不完全性의 必然的 產物이라고 할 수 있다.

海外直接投資에 대해 위와 같은 基本的인 假定을 하고 그러한 觀點下에 FDI의 決定要因에 대해 研究한 學者들의 假說을 要約해 보기로 한다.

(1) 獨占的 優位假說(Monopolistic Advantage Hypothesis)

海外直接投資를 市場不完全性을 前提로 다룬 最初의 研究는 Hymer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그 이래로 海外直接投資 現象을 說明하는 가장 人氣있는 接近方法이 되었다. Hymer는 1960년에 쓴 그의 博士學位 論文中에서⁽⁴⁷⁾ 海外에서 生産工場을 設立해서 運營할 때 外國企業은 現地企業과 比較해서 靚연적으로 不利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特定國家에 直接投資를 하려면 投資企業은 現地와 競爭企業이 갖고 있지 않으며, 또한 그 나라에서 직면하게 되는 불리함을⁽⁴⁸⁾ 補償할 수 있는 企業特有的 優位要素(firm-specific advantage)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優位를 所有함으로써 그 企業은 本國에서 보다, 그리고 被投資國의 現地企業보다 더 많은 利益을 얻을 수 있으며 따라서 海外直接投資도 可能해 된다는 것이다.

(43) Reuber et al., Op. Cit.

(44) Barlow, E. Robert, and Ira T. Wender, Foreign Investment and Taxation, Englewood Cliffs, 1955.

(45) 이러한 理由로 해서 Barlow 와 Wender의 理論을 도박 所得假說 또는 流動性假說이라고 한다. 閔相基, 韓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 『鄒齊黃炳駿博士回甲紀念論文集』, 서울大學校 出版部, 1984, p.834.

(46) 이와 같이 輸出이나 라이선싱 代身에 海外直接投資하는 것을 內部市場의 創造라고 한다. 즉 企業外部의 市場機構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가지 機能을 多國籍企業 시스템 內에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7) S.H. Hymer, "The International Operations of National Firms: A Study of Direct Investment." Doctoral Dissertation,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1960.

(48) 外國企業이 가지고 있는 比較優位는 現地 顧客들의 嗜好, 法律制度, 企業慣習, 社會慣習, 그리고 遠距離에서 營業을 함으로써 補償해야 할 運費, 통신비 등의 追加費用 等を 잘 모르고 있으며, 外國企業들은 現地인과 外國人에게 높은 賃金を 支拂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公共機關으로부터 차별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다는데서부터 나온다.

Hymer의 指導敎授였던 Kindleberger 敎授는⁽⁴⁹⁾ 이와 같은 Hymer의 아이디어를 보다 세련되게 발표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外國企業이 가지고 있는 企業特有的 獨占的 優位의 源泉은 다음 네 가지라고 한다. 첫째, 製品差別化, 企業特有的 마케팅技術, 管理價格의 策定 등과 같은 製品市場에서의 不完全競爭, 둘째, 特許技術, 企業特有的 經營技術, 資本調達力에서의 優位 等 生産要素市場에서의 不完全競爭, 셋째, 規模의 經濟, 넷째, 政府의 干涉 등 市場의 不完全性 等이다.

이상과 같은 市場不完全性 또는 獨占的 優位가 하나 이상 있어야 하는 것이 海外에서 營業을 하기 위한 필수조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만으로 充分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어떤 企業은 이러한 優位點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輸出이나 라이선싱과 같은 方法을 택할 수도 있고 管理技術이나 마케팅技術을 빌려 주거나 販賣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企業들이 FDI를 선택하는 理由에 대해서 獨占的 優位假說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 問題에 대해서 Hymer-Kindleberger 假說 이후 많은 研究者들의 關心이 집중되었는 바 以下에서 이들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하자.

(2) 行爲假說(A Behavioral Hypothesis)

위 問題에 대해 재미있는 解答을 준 사람은 Aharoni 이었다.⁽⁵⁰⁾ 그는 Cyert와 March 등이 주장한 企業의 行動主義理論(企業行爲理論)에 바탕을 두고 企業이 最初의 投資決定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根本的인 變數는 不確實性(Uncertainty), 情報(Information) 및 積極적 관심(Commitment)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企業體의 經營者는 보통 海外投資에 관하여 不確實性이나 危險이 많은 것이라고 과대평가 하는 경향이 있고, 자기가 익숙한 企業環境속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강하므로 經營者로 하여금 海外投資를 可能性있게 생각하도록 할수있는 最初의 힘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초창기의 힘으로서는 어떤 特定 FDI에 대해서 組織内部的인 높은 地位에 있는 몇몇 管理者들이 매우 강력한 關心을 표명하는 것과 같은 内部的인 것 뿐만 아니라 外部的인 것도 있을 수 있다.

外部的인 것으로는 外國政府의 제안, 流通業者나 顧客과 같은 既存 海外去來先의 권고, 市場을 상실할 危險, 外國企業의 國內進出에 따른 國內市場에서의 競爭激化 等을 들 수 있다. 그는 또한 最初의 說得力에 미치는 영향력을 높여 줄 수 있는 몇몇 부수적인 要素로서 部品및 다른 製品에 대한 市場創造, 남은 機械의 活用可能性, 노우-하우의 資本化 等을 들고 있다.

일단 FDI의 可能性이 經營者에 의해 고려가 되고 나면 最初說得力의 크기에 따라 가능한 프로젝트의 評價에 필요한 情報을 수집하는 段階로 진척하게 된다. 이러한 情報蒐集의 과정에서 조사단의 한두명 이상이 個人的으로 그 프로젝트에 대해 강력한 關心을 갖게 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投入한 時間과 努力이 헛되지 않고 자신의 昇進과 利益을 위해서 그 일이 成事가 되도록, 다시 말하면 投資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結論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프로젝트의 수행여부는 特定 FDI에 대해 最高經營者가 가지고 있는 悲觀的인 생각을 어떻게 하던 除去해 줄 수 있는가 하는 說得力과 연관을 주는 그들의 能力에 달려 있다고 한다.

Aharoni는 지적하기를 意思決定過程에 介入되어 있는 서로 다른 사람들과 機構들이 지향하는 目標들은 심각한 갈등관계에 있기가 쉽고 따라서 傳統的인 利益極大化目標은 達成되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Aharoni의 研究는 海外投資 決定過程에 대해 시사해 주는 바가 많은 것은 확실하나, 그의 分析에 의해서 檢證possible한 經驗적 假說은 導出되지 않았으며, 또한 理論을 一般化시킨 근거가 주로 限定된 寸자의 企業들과의 인터뷰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이들 인터뷰 대상들이 보다 오랜 FDI 經驗을 가진 美國 企業 全體 母集團을 代表하지 못한다는 短點을 가지고 있다.

(3) 製品循環 假說(Product Cycle Hypothesis)

이 假說은 海外直接投資와 國際貿易, 둘 다를 說明해 주는 것으로서⁽⁵¹⁾ 그 역사적 發展過程은 Vernon에⁽⁵²⁾

(49) Kindleberger, Charles, *American Business Abroad; Six Lectures on Direct Investment*, New Haven, 1969.

(50) Aharoni, Yair, *The Foreign Investment Decision Process*, Boston, 1966.

(51) 제품순환가설을 FDI에 적용시킨 學者는 Vernon, Hirsch 等이 있고 국제무역의 설명에 사용한 學者는 Posner, Hufbauer 等이 있다.

(52) Vernon, Raymond, "The Product Cycle Hypothesis in a New International Environment,"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41, Oxford, 1979.

의해 잘 요약 되어 있다. Vernon 에 의하면 製品은 다음과 같은 3段階의 라이프사이클(life cycle)을 거쳐 成長發展 되어 가는데 각 段階別로 最適生産立地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 결과 海外直接投資가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

제 1 段階는 新製品段階로서 製品 自體나 生産方法 등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市場과의 情報의 피이드·백이 계속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必要性이 크며, R & D 부서와 生産부서 간에 效率的인 협조를 해야 할 필요성이 높고, 그 製品에 대한 需要 또한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⁵³⁾ 生産工場은 市場과 가까운 本國에 立地하게 된다.

제 2 段階: 製品의 成熟段階로서 점차로 製品生産技術의 標準化가 이루어지고, 需要構造가 비슷한 다른 나라에 輸出이 增加하게 되면, 現地企業의 모방, 그리고 예상되는 貿易障壁 및 立地の 經濟性 때문에 企業은 現地生産(海外直接投資)을 하게 된다.

제 3 段階: 製品의 標準化段階로서 이段階에서는 製品의 生産技術 뿐만 아니라 製品自體가 完全하게 標準化되어 製品의 生産을 最初의 革新者가 獨占할 수 없고, 또한 價格競爭이 他生産業者들과 치열해지기 때문에 費用 특히 勞働費上的 利點을 確保하기 위하여 勞務費가 낮은 開途國으로 直接投資를 하게 된다고 한다.

Vernon 은 처음에는 製品循環 假說을 美國의 多國籍企業들을 對象으로 하여 導出하였으나, 후에 몇차례에 걸친 假說의 확장을 통하여⁽⁵⁴⁾ 勞務費 뿐만 아니라 다른 要素費用(土地 및 原材料)도 고려한 假說로 발전시켰고, 그 適用對象도 미국 多國籍企業에 限定되지 않고 모든 先進國 企業들의 FDI 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1976년에 Hirsch 는⁽⁵⁵⁾ 製品循環 假說을 보다 一般化시켜 製品革新, 輸出 및 海外直接投資가 반드시 필연적인 段階를 거쳐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어떤 企業體가 外國市場에 進출할때 輸出과 FDI 들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영향을 미치는 要因들을 열거해 주었으며, 1979년에는⁽⁵⁶⁾ 더욱 精巧화시켜 先進國의 경우와 開發途上國의 경우를 분리시켰다. 그러나 원래 이 假說은 1950년대와 '60년대의 美國企業의 情形에 바탕을 둔 것이며 이 時代의 生産, 輸出 및 FDI 사이의 關係에 대해서 有用한 說明을 해준 假說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이 假說이 모든 FDI 를 다 說明할 수는 없었다. Vernon 자신이 製品循環假說은 "現實을 精巧하게 單純化"시킨 것이라고 하였으며, 投資行爲에 영향을 미치는 社會的 要素, 政治的 要素 및 特異한 상황요소들의 복합체를 포함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하고 있다. 더불어 이 假說의 開發 이후에 技術的인 與件도 변화되었고, 製品市場 및 國際的인 要因들도 많이 變化되었다. 즉 美國의 技術先導者로서의 위치가 많이 퇴조하였고 先進國들 사이의 소득격차도 많이 없어졌다. 따라서 제품순환가설의 몇몇 基本假定들이 이제는 더 이상 맞지 않은 狀況이다. 따라서 FDI의 原因을 說明해 줄수 있는 이 假說의 說明力은 많이 弱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寡占의 競爭假說(Oligopolistic Reaction Hypothesis)

Knickerbocker 는⁽⁵⁷⁾ FDI 를 과점적 경쟁행위의 결과라고 하였다. 187個의 美國製造業 分野 MNC 들의 FDI 에 관하여 Harvard 經營大學院이 調査한 資料를 利用하여 그는 ECI(Entry Concentration Index : 進入集中係數)를 만들었다. 이것은 美國企業들이 海外市場에 進出한 事實을 年代順으로 묶어 놓은 것인데 그 해석에 의하면 과점적 企業들은 最初의 企業이 FDI 로부터 얻을수 있는 利益에 대해서 자기들도 競爭의 均衡을 가져오기 위해서 뒤따라 海外直接投資를 함으로써 반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海外直接投資 企業은 대개의 경우 소수의 支配的 企業으로 특징지어지는 產業에 속해 있는 大企業들이기 때문이다. 이러

(53) 어떤 나라에서 特定 新製品이 開發되었다는 것은 그 나라의 需要構造가 그러한 新製品의 開發에 가장 적합 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54) Vernon 은 1971년에 "The Multinational Spread of U.S. Enterprise," 1974년에 "Competition Policy Toward Multinational Corporation" 그리고 "The Location of Economic Activity" 라는 세가지 論文에서 그의 假說에 대한 확신을 시도 하였다.

(55) Hirsch, Seev, "An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Theory of the Firm," Oxford Economic Papers, N. S., Vol. 28, Oxford, 1976.

(56) Agmon, Tamir, and Seev Hirsch,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the Developing Economies: Potential Gains in a World of Imperfect Markets and Uncertainty,"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41, Oxford, 1979.

(57) Knickerbocker, Frederick T., Oligopolistic Reaction and Multinational Enterprise, Boston, 1973.

는 支配的인 企業들은 조수이지 때문에 이 企業들 다른 企業들의 競爭的인 움직임의 영향 받지만, 한편 些 許의 한 競爭企業의 海外直接投資를 하는 경우 危險極小化 戰略에 따라서 여타의 競爭企業로 이어져 海外直接投資의 1계 단계는 것이다. 이 3국 國內의 競爭의 結果, 相關기업의 企業들이 여타 나라에 集中的인 投資를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現象은 “핸드웨곤”(handwagon) 效果라고 한다. 또한 여타의 國內의 競爭에 따른 FDI의 國家間에도 影響하는데, 美國의 主要인 企業들이 유럽이나 캐나다에 投資하는 경우가 유럽이나 캐나다의 企業들을 反對로 美國에 直接投資를 함으로써 相稱적 影響을 미치고 상호 影響력을 유지하고 있다. 하이더·로트호른⁽⁵⁸⁾ 이의 多國籍企業의 辯證法이라고 하였다.

이 假說에 대한 實證的 究明은 너키카키 著述에 의해 행해질 바 있는데, 그는 자기가 받은 ECI를 美國國內의 集中指數의 比較에 관한 結果 이 두 指數 사이에 有意한 양의 相關關係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여타의 3국 중 어느 一國의 産業의 集中이 增加되던 때 다른 2國은 水準을 除外한 FDI 分野에서 相稱적 影響을 증가시켰다고 結論하였다. 그러나 높은 水準의 FDI에서 相關係수가 低되고 安定的이고, 따라서 現地市場에서 相稱적 影響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Flowers의 檢證에⁽⁵⁹⁾ 의하면 美國으로 흘러 들어오는 캐나다와 유럽 국가들의 FDI가 美國에서 産業別로 集中되는 程度는 캐나다와 유럽 國內에서의 産業別集中과 相關關係가 강하다고 하며, 유럽과 캐나다의 美國內 FDI는 美國이 원래 유럽과 캐나다 지역에 대한 FDI 이후 약 3년의 時差를 두고 反應을 보였다고 한다.

나라끼리의 假說이 浮고가는 재미있는 結論은 相稱적 경쟁행위의 결과인 FDI는 스스로 制限을 가한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最初의 美國 FDI 및 거기에 反應하는 유럽과 캐나다의 FDI는 각각의 現地國에서의 産業集中을 감소시키려는 쪽으로 행해지기 때문이라 한다. 最近에 日本, 西獨 및 다른 國家들로부터의 FDI가 增加된 結果에 따라서 많은 産業에서의 國際競爭이 강화 되었다는 事實을 보더라도 이러한 事實을 확인 할 수 있다. 너키카키의 假說로부터 引을 수 있는 結論은 이 競爭이 結果 FDI의 흐름을 감소시킨 것이라 할 것이다. 아까운 그런 조짐이 보이기 않는다. 이와 같이 이 假說의 未來 예측치인 價値는 大體로 限定的 이다. FDI에 대해 部分的인 說明에 해주지 못한다는 短點이 있다.

따라하면 주요 投資家들이 계속 많이 지 않고 投資를 하고 있는 理由를 說明해 주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企業들의 FDI가 광범위하게 散在되고 있는 現象을 說明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5) 內部化 假說(Internalisation Hypothesis)

內部化한 市場不完全性으로 인한 市場失散에 反應하여 內部市場을 創造하는 과정이다. 企業의 內部市場은 失散을 外部市場을 代替하여 管理的 命命을 利用하여 配分の 問題를 해결해 준다.

이러한 市場不完全성과 內部化間의 關係를 처음으로 認識한 學者는 버클리와 카슨이었고, 루트란은 內部化理論을 海外直接投資의 一般理論으로 提示하였다. 그밖에 代表的인 學者들로서는 케이브스, 해킨, 로트호른이 있는데 이들의 理論을 차례로 살펴 보기로 한다.

버클리와 카슨(Buckley and Casson)은⁽⁶⁰⁾ 主要中間財인 人的資本, 知識, 마케팅 및 經營專門家 등에 대한 市場은 不完全한 市場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市場間에 어떤 活動을 연결시키는 때에는 간단한 時差(時差)(time lag)과 去來費用의 부담이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企業들은 이러한 財貨에 對해서는 外部市場을 活用하기 보다는 그들 자신의 內部市場으로 代替하려 한다. 이러한 內部化가 국경을 넘어서 國際市場 水準에서 행해지는데서부터 海外直接投資가 發生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면 그 過程은 內部化로 된 利益과 費用이 限界의 으로 갈아지는 時點까지 계속된다고 하는데 內部化로 된 利益으로는 時間差와 稅收, 協商 및 購買者不確實性의⁽⁶¹⁾ 理由, 移轉價格 政策(transfer pricing)을 통한 政府의 干渉과 差別

(58) Hymer, S.H. and Rowthorn, K.,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International Oligopoly: the Non-American Challenge" in Kindleberger C.P. (ed.), 1970.

(59) Flowers, Edward B., "Oligopolistic Reaction in European Direct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Ph.D. Diss. Georgia State University, 1975.

(60) Buckley, Peter J. and Mark Casson, The Future of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London, 1976.

(61) 購買者不確實性(buyer uncertainty)이란 購買者가 製造에 對해 느끼는 불만은 指한다. 이는 購買者의 販賣者나 一 品의 品質과 가격에 對한 知識이 同一하지 않기 때문에 發生한다. 보다 詳細한 說明은 本書의 不確實性과 顧客의 不確實性을 參照해 보 수 있다.

價格 政策을 使用할 수 있는 政府의 能力을 極少化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 內部化의 費用이란 追加로 所要되는 管理費 및 커뮤니케이션 費用을 말한다.

多國籍企業들은 FDI 라는 過程을 통하여 外部의 中間財市場을 거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한가지 불확실한 것은 이 市場을 거치지 않는 것이 과연 상당한 액수의 去來費用과 긴 時間隔差라는 側面에서 볼 때 이들 市場들이 非效率的이기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理由 때문인가 하는 問題이다. 여기에 대한 Dunning 의 主張에 의하면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革新에 대한 結果를 排他的으로 使用할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한 것이 더 뚜렷한 理由인 듯이 보인다. 왜냐하면 革新家は 자기가 이룩한 革新의 結果를 보다 오랫동안 排他的으로 使用하면 할수록 그가 얻을 수 있는 獨占利潤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中間財에 있어서의 革新의 結果에 대한 市場은 보통 存在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革新家は 外部市場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內部市場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問題로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革新結果에 대해 市場을 형성할 것인가 아니면 排他的으로 使用할 것인가에 대한 選擇을 해야 한다. 아마도 그는 후자의 전략을 선택하기가 쉬울 것인데 그것도 모방자들이 그 製品에 대한 市場을 형성할 때까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問題點에도 불구하고 Buckley 와 Casson 에 의한 試圖는 價値가 있는 바, 그 理由는 이와 같은 노력이 FDI 와 多國籍企業에 대한 一般理論을 體系化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 強調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의 理論的 틀은 短期分析에는 適用되지 않으며, 한두 國家에서 FDI 를 하고 있는 中小企業의 경우에는 특히 適用되지 않는다. 이 理論에 대한 實證分析은 대단히 어렵지만 不可能한 것은 아니다. Buckley 와 Casson 自身들에 의해서 행해진 單純한 統計的 檢證에 의하면 內部化의 現象은 주로 R & D 支出을 많이 하는 企業體에 集中되어 있다는 結論이었는데 여타 많은 學者들도 이와 같은 結論에 도달했다.

루그만(A. M. Rugman)은 海外直接投資에 대한 說明으로서 內部化를 一般理論으로 제시하고 있다.⁽⁶²⁾ 즉 多國籍企業은 海外直接投資를 통하여 內部市場을 創造함으로써 知識이나 다른 中間財 生産에 대한 外生的 市場不完全性を 극복하려 한다는 內部化理論속에 다른 많은 學者들의 理論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하였다. 루그만이 이와 같은 一般理論으로서의 內部化理論의 下位理論이라고 생각한 理論들로서는 케이브스(R. E. Caves), 존슨(H. G. Johnson), 매기(S. P. Magee), 허어쉬(S. Hirsch), 버논(R. Vernon), 니커박커(F. T. Knickerbocker), 고지마(K. Kojima), 로박 등(Robock, et al.), 알리버(R. Z. Aliber), 루그만 자신의 危險分散서비스理論, 行動科學者들의 研究 등이 있는데 여기서는 케이브스, 매기, 로박, 루그만 自身の 理論만 살펴 보기로 한다.

우선 케이브스는⁽⁶³⁾ MNC 는 市場不完全성에 대응하여 本國에서와 같거나 비슷한 種類의 製品을 海外에서 生産하는 水平的 統合 즉 製品差別化를 통하여 他企業이 쉽사리 模倣할 수 없도록 하는 方法과, 本國工場과 海外生産의 垂直的 利用과 같은 垂直統合에 의하여 새로운 競爭者에 대한 進入障壁을 높이는 方法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볼 때 케이브스의 研究는 內部化理論의 出發點인 市場不完全성을 認識하였으며 또한 內部化의 類型을 說明하였다는 점에서 一般理論으로서의 內部化理論의 下位理論이라고 할 수 있다.

매기의 理論은⁽⁶⁴⁾ 私的所有可能性理論(appropriability theory)이라고 하는데 그에 따르면 企業이 產出した 知識은 公共財의 特性을 지니기 때문에 正規市場에서 정당한 價格이 設定되기 어렵고 그 결과 私的所有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企業은 私的所有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內部市場을 創造함으로써 그 知識을 企業시스템 내에서 效率적으로 利用할 수 있다. 結論적으로 말하면, 매기의 研究는 公共財特性으로 인한 知識市場의 失敗 때문에 企業이 產出した 知識의 私的所有 가능성을 確保할 수 없을 때 內部화한다고 주장하였다는 점에서 一般理論으로서의 內部化理論의 下位理論이라 할 수 있겠다.

(62) Rugman, A. M., "Inside the Multinationals: The Economics of Internal Markets,"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81.

(63) R. E. Caves, Multinational Enterprise and Economic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64) S. P. Magee, "Information and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An Appropriability Theory of Direct Foreign Investment," in J. N. Bagwati (ed.), The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Cambridge, Mass., MIT Press, 1977. pp. 317-340.

로막 등에 의하면⁽⁶⁵⁾ 多國籍企業은 本國에서 輸出에 의존하기 보다는 오히려 海外子會社를 설립함으로써 輸送費用(去來費用에 속함)을 절약할 수 있다는 이론과 立地理論을 주장 하였다. 이러한 立地理論은 海外直接投資에 대한 獨立的인 說明이 아니라 內部化理論의 豫測力을 강화해 주는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海外市場을 서어브하는 MNC의 生産을 決定해 주는 源泉은 立地經濟的인 반면에 MNC의 全般的인 構造와 營業은 企業特有優位에 의하여 決定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空間的 費用의 節約은 多國籍企業에 의해 內部化된 企業特有優位の 또다른 例라고 볼 수 있으므로 로막 등의 研究는 一般理論으로서의 內部化理論의 下位理論이라 할 수 있겠다.

루그만은⁽⁶⁶⁾ 이론과 그의 危險分散서비스理論(Risk diversification service theory)에서 單一企業에 比較하여 多國籍企業은 더 나은 株式市場成果를 달성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더 나은 成果는 內部市場을 통한 情報의 利用이라는 多國籍企業의 優位에 기인한다. 資本市場이 不完全한 世界에서 個人的 國際的 分散의 代理手段으로서 多國籍企業의 役割은 그러한 市場不完全성을 극복하는 內部市場을 創造하는 能力에 關連된다. 結論의으로 말하면 루그만의 研究는 世界資本市場의 不完全性 때문에 MNC가 內部化를 한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에 一般理論으로서의 內部化理論의 下位理論이라 할 수 있다.

以上에서 內部化理論을 루그만(A. M. Rugman)의 接近方法에 따라 살펴 보았다. 內部化理論에 의하면 內部化는 市場不完全性으로 인한 市場失敗 때문에 발생하는 市場去來費用을 회피하기 위하여 輸出이나 라이선싱과 같은 市場去來를 하기보다는 企業內去來로서 海外直接投資를 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市場不完全성이 存在하지 않는다면 內部化는 發生하지 않는다. 즉 內部化理論은 海外直接投資에 대한 市場不完全性 接近方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接近方法은 製品(知識)市場의 不完全性, 要素市場의 不完全性, 資本市場의 不完全性 및 勞動市場의 不完全性 등에 모두 적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內部化理論은 市場不完全性만 假定한다면 어느 市場에도 적용될 수 있는 有利點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內部化理論의 一般性에는 限界點이 있다.

첫째, 內部化理論은 企業의 海外進出動機를 설명하는데 限界性이 있다. 즉 內部化理論의 出發點인 市場不完全성이 存在하는 것만으로 海外에 進出한다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다. 國內市場 뿐만아니라 國際市場에서 市場不完全성이 存在한다면 內部化를 하게 되겠지만, 國內市場에서의 內部化가 더욱 매력적이려면 國際市場에 不完全성이 存在한다고 하더라도 구대어 海外進出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둘째, 企業이 오히려 市場不完全성을 창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한다. 즉 內部化理論에 의하면 企業은 外生的인 市場不完全성에 반응하여 內部市場을 創造한다고 하였는데, 市場不完全성을 外生的으로 다루고 있는 內部化理論은 企業이 스스로 創造하는 市場不完全성을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多國籍企業은 매때로 市場不完全성을 內生化하여 企業特有優位를 영속화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市場不完全성의 內生化는 企業特有優位를 유지하기 위한 企業의 노력이다. 그러므로 多國籍企業은 外部市場 不完全性的 產物인 同時에 그것을 유지하고자 하는 惡漢이라 하겠다.

셋째, 生産立地나 行爲問題를 內部化理論으로서는 說明하기 어렵다고 한다. 특히 生産立地要因은 주로 國家 및 地域特有的의 要素이기 때문에 이들은 企業의 內部化 對象이 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輸出과 海外直接投資間의 선택을 內部化理論에 의하여 설명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限界點을 극복하기 위하여 던닝(J. H. Duuning)은 獨占的 優位理論과 內部化理論에 추가하여 루그만의 接近方法이 說明하기 어려웠던 立地要素를 다루는 生産立地 理論(location theory: 輸出과 海外直接投資間의 선택을 설명해 주는 理論)을 덧붙여 折衷理論(eclectic theory)을 提示하고 있는데 이하에서 살펴 보기로 한다.

(6) 折衷理論(Eclectic theory)

이상에서 살펴 본 여러가지 假說들의 大部分은 단지 FDI의 決定要因을 部分的으로 밖에 說明해 주지 않

(65) S. H. Robock, K. Simmonds and J. Zwick, op. cit.

(66) A. M. Rugman,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and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Lexington: D. C. Heath, 1979.

는다. 따라서 지금까지 나온 FDI에 관한 知識들을 統合할 수 있는 一般理論의 必要性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이 問題에 대한 計量的 接近法은 성공적이지 못하였는데 그 理由는 理論的 및 統計的인 問題가 둘 다 해결되지 못함에 있었다. 특히 FDI에 대한 國際統計資料는 不完全하고 不正確한 경우가 많다. FDI에 관한 統計資料들이 이렇게 分析的인 檢定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포괄적이고 상세하지 못한 理由는 FDI의 性格 그 자체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理論的인 측면에서는 대단히 획기적인 발전인 조만간 이루어질 조짐이 보인다. 이에 대한 희망은 던닝(Dunning)의 論文에⁽⁶⁷⁾ 걸려 볼 만하다. 그는 折衷的인 研究方法를 채택함으로써 FDI의 일반이론을 개발하는데 희망적인 出發을 하였다. 그의 假說에 의하면 海外直接投資가 이루어지려면 企業特有(firm-specific)의 獨占的 優位 以外에 內部化의 優位와 被投資國 特有的 優位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企業特有的 獨占的 優位를 外部市場에서 販賣하는 것보다는 內部化하는 것이 有利할 때 企業은 라이선싱 방식을 버리고 輸出이나 海外直接投資를 택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資本, 技術을 海外로 移轉하여 現地에서 生産하는 것이 國內生産보다 有利할 때, 즉 現地特有的 優位가 있을 때 企業은 輸出 대신 FDI를 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지금까지 살펴 본 海外直接投資理論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理論의 出發點은 競争優位の 源泉을 밝혀주는 獨占的 優位理論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理論은 國際經營의 세 가지 基本的인 形態인 輸出 라이선싱, FDI 중 어떤 형태를 취할 것인가는 說明해 주지 못한다. 즉 海外直接投資에 대한 필요조건은 되나 충분 조건은 되지 못했다. 이에 1970年代 중반부터 라이선싱과 海外直接投資의 선택기준으로서 內部化理論이 開發되었고 한때는 海外直接投資의 一般理論으로 일컬었으나, 輸出과 FDI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또는 海外直接投資를 할 때 어느곳에 할 것인가에 관련된 立地要因의 說明이 약했다. 이에 던닝은 既存의 獨占的 優位理論과 內部化理論에다가 立地上的 優位 즉, 自國에서 生産할 때 보다는 有利한 要素, 예를 들면 낮은 賃金, 값싼 에너지나 原材料, 現地政府의 投資誘引策(investment incentives) 등과 같은 有利點이 存在해야 한다는 生産立地理論을 첨가한 결층이론을 개발했던 것이다. 따라서 海外直接投資理論의 큰 줄기는 獨占的 優位理論→內部化理論→折衷理論으로 흘러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3. 投資性向의 差異에 基礎를 둔 假說

여기서는 FDI 理論의 發展過程에서 상당한 關心을 集中시켰던 두가지 假說 즉 流動性假說과 通貨地域假說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前者는 어떤 한 企業體의 FDI 決定動機에 관한 것이며, 後者는 國際資本市場 및 外換市場의 不完全性으로 인해 한 國家의 FDI가 어떤 영향을 받는가에 대한 것이다. 그외에 한 企業이나 産業이 海外投資를 하는 性向에 영향을 미치는 變數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研究들도 살펴 보고자 한다. 그런데 이러한 理論들은 그 基本假定上으로 볼 때 前節에서 檢討한 市場不完全性을 기초로한 假說들과 같은 부류에 포함시켜도 좋을 것으로 본다.

(1) 流動性 假說(Liquidity Hypothesis)

Barlow 와 Wender의 도박이익假說(gambler's earnings' hypothesis)⁽⁶⁸⁾로부터 國內投資의 流動性理論(liquidity theory)을 FDI에 적용해 보려는 시도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前述한 바와 같다. 流動性理論이란 内部現金흐름(internal cash flows)과 企業의 投資支出 사이의 相關關係를 定立해 보려는 理論이다.

Barlow 와 Wender는 海外營業을 하고 있는 美國企業들이 행한 最初の 投資는 적절한 水準이었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海外營業의 확장은 現地利益의 再投資에 의해 더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 假說에 반대의 견해를 提示한 사람은 Stevens 와 Severn인데 Stevens는⁽⁶⁹⁾ 營業實績이 좋은 美國企業의 海外支社 71個를 標本으로 하여 검증해 본 결과 支社의 확장이 오로지 그들의 留保利益만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들의

(67) J.M. Dunning, "Trade, Location of Economic Activity and the MNE: A Search for an Eclectic Approach," in Bertil Ohlin et al. (eds.), *The International Allocation of Economic Activity*, Proceedings of a Nobel Symposium Held at Stockholm June 8-11, 1976, London, 1977 and "International Production and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London, Allen and Urwin, 1981.

(68) Barlow, E. Robert, and Ira T. Wender. op. cit.

(69) Stevens, Guy V.G. op. cit.

留保利益中 一定比率를 固定的으로 投資에 充當하고 있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Severn은⁽⁷⁰⁾ 1961년~1966년 사이의 製造業分野 FDI 企業中 68個 企業을 對象으로 횡단면적의 결과 內部的으로 創出된 利益은 最高經營者에 의하여 支社와 本社間에 企業全體의 立場에서 가장 效率的인 方法으로 轉讓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研究들과 대조적으로 Brash는 “오스트레일리아의 産業에 進出한 美國投資”라는⁽⁷¹⁾ 研究에서 營業확장을 위하여 필요한 資金의 重要한 원인은 留保利益과 減價却充當金이라는 가설을 강조 하였고, Reuber 等은⁽⁷²⁾ 인터뷰 資料에 의하여 후진국대지의 FDI에 대한 內部現金 흐름의 영향을 分析해본 결과 企業全體로서의 現金흐름과 支社 단독의 現金흐름을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후진국에서는 企業의 內部現金흐름이 FDI의 주요 決定要因이 아닌 경우가 있는데 그 理由は 內部現金흐름에 의한 投資는 大部分의 企業體의 現金 再投資 需要의 매우 적은 部分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들은 國際資本市場에서 보다 有利한 條件으로 投資財源을 쉽게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러나 후진국에서 營業활동을 하고 있는 外國支社들의 內部現金 흐름은 新規投資의 중요한 資源이 될 수 있는 바, 이러한 情狀은 利益送金 및 資本移轉에 대한 후진국들의 制限조치 때문에 더욱 뚜렷해진다고 볼 수 있다. 事實은 이와 같은 두 가지 양극단의 中間에 위치 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즉 海外支社의 投資 주자는 단지 그들의 利益에만 달려있고 그 投資決定은 재원조달의 원천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企業들이 그들의 內部에서 발생한 資金을 支團에 投資하고자 하는 情狀이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으며, 그것은 후진국의 경우 그들의 資本市場이 不完全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다.

(2) 通貨地域 差異假說(Currency Area Hypothesis)

Aliber는⁽⁷³⁾ FDI의 패턴은 서로 다른 通貨地域의 存在로써 說明된 수 있다는 假說을 세웠다.

어떤 通貨는 어떤 時點에서는 다른 通貨에 비해 強勢일 수 있고, 市場은 強勢通貨의 프리미엄 評價에 있어서 편견을 가질 수도 있다. Aliber의 주장에 의하면 로오르폴리로 投資家들은 企業의 海外收益에 대해 발생한 수도 있는 換危險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한다. 결과 強勢通貨 地域에 있는 企業들은 저렴한 費用으로 資金을 調達하여 야생통화 지역에서 現地企業들보다 有利한 조건으로 FDI를 수행하여 얻을 收益을 資本化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企業의 附加價值에서 차지하는 資本의 기여도가 높을 수와, 그리고 現地通貨에 대한 구매력이 할수록 外國人投資家는 現地企業보다 더 큰 比較優位를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엄격하게 말하면 이 假說은 實證的으로 檢證된 바가 없다. 많은 經濟學者들이 동일한 情狀에 의하여 어떤 通貨가 過大平價되면 FDI가 흘러 나가고 過小平價되면 그 通貨地域으로 FDI가 흘러 들어온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몇몇 學者들은 한 국가의 通貨에 대한 平價切下는 FDI의 流入을 억제시킨다고 하고 있는데 代表的인 學者가 Scaperlanda⁽⁷⁴⁾이다. 그는 Canada 달러가 美國 달러에 대해서 平價切下로 인하여 Canada에 流入되는 FDI에 부정적인 影響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 하였다. 그러나 이 假說을 統計的으로 檢證해 본 결과 많은 學者들은 平價切下는 FDI의 流入은 促進시키고 流出을 억제한다고 믿고 있다. 이를 들면 1977년에 Kohlhagen은⁽⁷⁵⁾ 1960年代에 프랑스와 독일 및 英國地域에서는 平價切下로 인하여 海外生産에 比하여 國內生産의 相對的인 收益性이 높아졌고 이로인해 平價切下國家로 FDI가 流入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어떤 通貨의 平價切下가 어떤 産業의 FDI에 미치는 影響이 크기는 그 産業이 얼마나 큰 海外로 輸出하고 있으며

(70) Severn, Alan K., "Investment and Financial Behavior of American Direct Investors in Manufacturing," In: Fritz Machlup, Walter S. Salant Leri Tarsilis (Eds.) International Mobility and Movement of Capital, New York, 1972, pp.367-396.

(71) Brash, Donald T., "American Investment in Australian Industry," Canberra, 1955.

(72) Reuber et. al., op. cit.

(73) Aliber, Robert Z., "A Theory of Direct Foreign Investment," In: Charles P. Kindleberger (Ed.), The International Corporation, Cambridge, Mass. 1970, pp.17-34. and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in a Multiple Currency World." In John H. Dunning (Ed.),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London, 1971, pp.49-56.

(74) Scaperlanda Anthony E., Trends, Composition and Determinants of United States Direct Investment in Canada. U.S. Department of Commerce, Offic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s, Washington, 1974.

(75) Kohlhagen Steven W., "Exchange Rate Changes, Profitability and Direct Foreign Investment," The Southern Economic Journal Vol. 44, Chapel Hill, 1977.

輸入하는 量은 얼마만큼인가 하는 相對的인 海外市場 依存度에 달리 있다고 하는 學者도 있다.⁽⁷⁶⁾

이러한 여러가지 研究들의 結果를 알 수 있는 것은 換率이라고 하는 것은 FDI의 決定에 影響을 미치는 여러개의 要因中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通貨의 過大平價, 過小平價, 또는 平價切下 및 再平價 等은 그것이 곧 어떤 FDI의 決定要素로 되는 것이 아니라 FDI의 타이밍을 決定해 주는 것이다. Aliber의 假定 즉 프오프플리오 投資家は 企業의 海外收益에 대한 換危險을 무시한다는 假定은 比較적 소규모의 投資家들에게 해당되는 것 같다. 그러나 오늘날 프오프플리오 投資를 支配하는 사람들은 大規模 機關投資者들이다. Aliber의 假定은 1950년 60年代에 美國에서 유행으로 흔히 간 FDI를 성공적으로 說明해 주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價値를 積存시켰다. 그러나 그것은 部分的인 說明에 지나지 않는 바 그 理由는 通貨地域間의 크차츠키나 같은 通貨地域들 間에 일어나는 FDI에 대해서는 說明을 못해 주기 때문이다.

(3) 巨視經濟的 接近理論(macro economic hypothesis)

Kojima⁽⁷⁷⁾는 個別企業에 의해서 誘引되는 FDI가 投資國과 被投資國의 巨視經濟的 觀點에서의 利益에도 增進하기 위해서는 投資國에서는 점차 比較優位를 상실해 가는 産業에서, 被投資國에서는 잠재적 比較優位를 갖고 있는 産業에서 FDI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되면 國際的인 産業構造의 變化的인 조정이 이루어지 比較優位에 의한 國際分業이 촉진됨으로써 國際貿易이 伸張되고 세계 전체의 福祉가 増進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행의 海外直接投資를 貿易指向的 海外直接投資(trade-oriented FDI)라 하고 日本型 海外直接投資가 이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반면에 美國型 海外直接投資는 比較優位를 갖는 部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貿易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며 해외로 剩餘를 輸出하게 되어 결국 國際收支上의 問題點을 초래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런 類型의 해외직접투자를 그는 反貿易指向的 海外直接投資(anti-trade-oriented FDI)라고 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FDI는 국제적인 生産구조의 조정에 影響하는 것이므로 결국 투자국의 보호 무역주의를 야기하여 국제적인 資源配分을 왜곡시킴으로써 세계 전체의 福祉향상에도 阻害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Ozawa는⁽⁷⁸⁾ 日本型 FDI가 이루어지게 된 要因으로서 國內 勞務費上昇, 地代의 上昇, 政府의 支援과 같은 巨視經濟的 要素를 指摘하였다. 그러나 Kojima의 分析에는 다음과 같은 問題點이 있다. 즉 그의 모델에서는 完全競爭市場과 静止 世界를 假定하고 있으며 技術을 時間에 따른 同質的인 製品으로 간주하여 기술주기(technology cycle)의 動態的인 性格을 무시하고 있다. 美國은 技術自體에서가 아니라 새로운 知識의 産出에서 比較優位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技術週期的인 연속적인 段階가 처음에는 國內市場에서 그리고 다음에는 海外市場에서 이용되는 것처럼 美國의 技術에 대한 FDI가 연속적인 기초에서 새로운 市場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것은 타당하다. 이와 같이 Kojima의 分析과는 달리 美國의 FDI는 貿易의 파괴가 아니라 自由貿易을 대신하기 위하여 발생한다. 달리 表現한다면 技術的인 高級商品에 대한 貿易阻礙이 있는 경우에 子會社에 의한 生産 및 마케팅으로 輸出을 대신하게 되기 때문에 貿易을 파괴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貿易이 否定될 때 그것을 代身하는 것이라 하겠다.

기타 FDI에 중요한 影響을 미치는 變數들로 가본 등장되는 것으로서 R & D 支出, 企業의 規模, 外國貿易集中度 등이 있으나 詳細를 說明은 略하기로 한다.

Ⅲ. 開發途上國의 FDI 決定要因에 關한 理論

Dunning의⁽⁷⁹⁾ 投資發展段階說에 의하면, 開發國의 FDI는 發展段階의 제 2단계(1인당 GNP 400~1500

(76) Sachchamarga, S., The Effect of Exchange Rate changes on Direct International Investment. Ph. D. Diss.,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1978.

(77) K. Kojima, "A Macroeconomic Approach to Direct Foreign Investment," Hitotsubashi Journal of Economics June, 1973.

(78) Ozawa T.,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Industrial Structure: New Theoretical Implications from the Japanese Experience," Oxford Economic Papers, Vol. 3, 1979.

(79) Dunning, J.H. "Explaining Outward Direct Investment of Developing Countries: in Support of the Eclectic Theory of International Production" in Kumar, K. and Meleod, M.G., (ed.), Multinationals from Developing countries, Lexington Books, D.C. Heath and Co., 1981.

달러)에서 제 3 단계(1인당 GNP 1500달러 이상)로 넘어 가면서 크게 증가하기 시작한다고 한다. 開發國에 의한 海外直接投資는 주로 멕시코, 브라질, 인도, 중남, 싱가포르, 대만, 한국 등 大部分 제2단계에서 제3단계로 전이하는 국가들에 의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開發國에 의한 FDI의 規模는 1960年代初의 미미한水準에서 1980년에 이르러 50~100억 달러에 달하는 規模에 이르는 것으로 推定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국가의 FDI 水準은 크게 나뉘어 先進國에 대한 進出, 同一水準의 開發國에 대한 進出, 後發開發國에 대한 進出으로 나뉘어 있는데, 주로 경제규모가 작고, 所得水準이 낮으며 지리적적으로 인접한 後發開發國으로 진출하는 것이 支配的이다.

이와 같은 開發國의 FDI를 설명하기 위해서 개발된 理論들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觀點으로 나뉘어 있다.

첫째, 先進國의 FDI를 설명하기 위해 개발된 이론은 제3국의 FDI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설명해 보려는 結論으로 Dunning의 折衷理論을 이끈 Wells의 接近方法.

둘째, 開發國의 FDI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理論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Kojima와 Ozawa의 견해.

셋째, Giddy와 Young으로 대표되는 견해로서 先進國의 FDI를 설명하기 위해 개발된 理論을 수정하여 開發國의 FDI를 설명하려는 입장 등이다.

(1) 折衷理論의 適用

Wells의 의하면⁽⁸⁰⁾ 開發國의 投資企業이 現地企業이나 先進國 MNC의 現地子會社와 경쟁할 수 있는 優位的 源泉은 母國市場의 특수한 성격에 잘 적응한 결과로서 얻어진다고 한다. 開發國의 企業들은 母國市場의 小規模이고 가격탄력성이 높은 성격에 적응하기 위하여 勞動集約的인 工程과 製品을 개발하고, 또한 輸入原資材를 國產原資材로 대체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기술은 역시 後發開發國에서도 비슷한 社會·경제적 환경과 필요에 적합하기 때문에 先進國에서 진출한 MNC의 現地子會社와의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Wells의 開發國 特有的 獨점적 우위에 대한 實證的 근거는 ① 별다른 研究開發投資없이 선진국으로부터 導入한 原本技術의 積진한 개발에 의해 외국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획득한 대만의 경우(Ting, W.L., Schive, C., 1981)를 비롯하여 ② 開發國投資企業들이 先進國投資企業의 子會社와 비교해 볼 때, 規模面에서 더 작고, 보다 勞動集約的인 技術을 사용하며, 現地原資材를 더 많이 生産에 投入한다는 레크로우의⁽⁸¹⁾ 研究結果와 ③ 인도의 海外合作投資에 있어서 인도를 出資分이 주로 資本財, 機械, 基礎原資材, 技術的 知見 知見 및 經營 知見의 형태로 제공되었다는 아가왈의 研究結果⁽⁸²⁾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나이지리아에 대한 남비리드⁽⁸³⁾의 開發國 海外直接投資 企業에 대한 事例研究을 보면 8건중 7건의 경우가 施設財 調達源이 그들의 母國이 아니라 先進國임을 발견하였다. 이는 Wells의 주장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이에 대해서 Wells는 特別한 技術上的 優位가 없더라도 開發國投資企業은 費用節減面에서 先進國投資企業에 대해 競爭優位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관리자와 기술자에 대한 모수에 있어서 開發國投資企業이 先進國投資企業보다 낮기 때문이다. 또 마케팅면에서라도 개도국투자기업은 現地市場에 적합한 마케팅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선진국투자기업에 비해 競爭優位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한국의 味元(株)이 인도네시아에 현지 생산공장을 세울 때, 이미 일본의 아지노모도가 大部分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었으나 日本企業의 마케팅이 자제상호의 세계적 지명도에 의존하고 있었음에 비하여 현지인들을 향하는 개별방문형식의 새로운 전략을 전개하여 현지시장의 특성에 적합한 마케팅기술로 현지시장에 침투할 수 있었던 사례를 예로

(80) Wells, L.T., "The Internationalization of Firms from Developing Countries" in Agmon, T. and Kindleberger, C.P. (ed.), 1966 and "Foreign Investors from the Third World" in Kumar, K. and McLeod, M.G., (ibid), 1981.

(81) Lecraw, D.J., "Internationalization of Firms from LDCs: Evidence from the Asian Region," in Kumar, K. and McLeod, M.G. (ed.), (ibid), 1981

(82) Agarwal, R.G. "Third-World Joint Ventures: Indian Experience" in Kumar, K. and McLeod, M.G. (ed.) (ibid), 1981.

(83) Namburidi, C.N.S., Olukunle Inyanda, and Akimesi, D.M. "Third-World-Country Firms in Nigeria" in Kumar, K. and McLeod, M.G., (ed.), ibid, 1981.

들 수 있다.

한편 Wells는 開發國投資企業들이 그들의 현지 시장에 적합한 기술을 라이선싱에 의하지 않고 海外直接投資를 선택한 이유, 즉 市場內部化의 이유를 다음 세 가지로 들고 있다. ① 개도국투자기업들은 선진국투자기업에 비하여 지명도가 낮기 때문에, 그들 기업의 기술에 대해서 현지국의 잠재수요자가 그러한 기술의 존재를 잘 알지 못하며, ② 개도국투자기업이 가지고 있는 競爭上의 優位, 즉 관리자나 技術者의 知識 등은 그 내용을 성문화시키기 곤란하며, ③ 國際的 特許權을 얻기에도 적합하지 않다는 것 등이다.

Dunning이 지적한 立地特有的의 要因(location-specific factors)도 개도국의 해외직접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개도국투자기업들은 현지의 低賃金을 이용하고, 선진국에 의한 貿易規制를 우회적으로 회피하기 위하여 低開發國으로 그들의 공장을 이동시킨다. 대부분의 多國企業들은 이러한 동기에 의하여 海外投資를 하고 있으며,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도 國內賃金上昇과 추격해 오는 後發開發國企業과의 경쟁에 대응하여 輸出産業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手段이라고 한다. 資源確保型 海外直接投資의 경우도 명백히 立地特有的의 要素가 결정적인 要因인데, 한국이나 대만과 같이 국내부존자원이 빈약한 나라에 이러한 형태의 해외직접투자가 많다.

(2) 開發國의 FDI에 대한 독자적 理論

Kojima 와⁽⁸⁴⁾ Ozawa 는⁽⁸⁵⁾ 주로 勞動集約的이고 標準化된 技術분야의 중소기업에 의한 對開發國 投資가 中心을 이루고 있는 日本型 海外直接投資는 企業特有的의 獨占的 優位에 기반을 두고 있는 미시적 접근방법의 선진국형 해외직접투자 이론으로는 적절히 설명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개도국의 海外直接投資 현상을 說明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理論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日本型 海外直接投資의 동기로서는 本國産業의 比較優位構造의 변화, 증대하는 환경적 제약 및 주요 資源供給에 있어서 증가하는 不確實性과 같은 巨視經濟的 要因이 보다 중요하고, 海外現地活動에 필요한 競爭優位도 投資國의 정부지원이나 피투자국의 투자 유인과 같은 巨視經濟政策的 誘因에 힘입는 바가 크다는 것이다.

(3) 先進國 理論의 修正 適用

이 觀點은 先進國의 海外直接投資現象을 설명하기 위해 開發된 理論을 수정하여 開發國의 海外直接投資現象을 說明하려는 입장이다.

Giddy 와 Young 은⁽⁸⁶⁾ 規模가 작고 기술상의 우위가 크지 않은 기업이라도 유리한 立地特有的의 要素가 작용하면 海外直接投資가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 企業은 企業特有的의 獨占적 우위가 낮기 때문에 海外現地 活動에 드는 費用을 줄일 수 있는 경우에만 海外直接投資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費用節減의 方法으로서 다음 여섯 가지론 들고 있다.

- ① 現地 파트너와의 合作投資로 現地에서의 情報수집 비용을 절감하고, 投資에 필요한 資金負擔을 줄일 수 있을 때
- ② 競爭構造의 類型을 잘 알고 있는 동일투자국기업이 주요경쟁자가 될 海外市場에 投資할 때
- ③ 下請母企業이 이미 진출하고 있는 등 안정적인 市場이 보장되어 있을 때
- ④ 租稅 연기에 따른 조세도피가 가능하거나 利子補填 등과 같은 유인이 제공되는 국가에 投資할 때
- ⑤ 언어나 文化가 投資國과 유사한 국가 또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에 投資할 때
- ⑥ 投資國보다 경제적으로 低開發 狀態에 있어 現地競爭의 강도가 낮은 國家에 投資할 때 등이다.

IV. 要約 및 結語

지금까지 살펴본 FDI 理論들을 要約해 보면, 먼저 1950年代에 주류를 이루었던 理論은 投資收益率 差異

(84) Kojima, K., op. cit.

(85) Ozawa, T., op. cit.

(86) Giddy, I.H. and Young, S., "Conventional Theory and Unconventional Multinationals: Do New Forms of Multinational Enterprise Require New Theories?" in Rugman, A.M. (ed.), 'New Theories of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London & Canberra, Croom Helm, 1982.

理論이었다. 이 이론에서는 FDI가 발생하는 原因을 資本의 投資收益率(利子率)이 國家마다 差異가 난다는 것으로 說明하려고 했다. 이와 같은 說明法은 海外投資의 主流가 높은 投資收益率을 目標로 하는 間接投資의 형태를 보였던 2次 世界大戰 前의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었고, 그러나 完全競爭市場을 假定함으로써 基本的으로 海外直接投資가 發生할 수 없는 條件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1960年代 이후의 FDI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었다. 1960年代 이후의 FDI는 資本移動에 수반하여 技術 또는 經營技法까지도 함께 移動되는 새로운 형태의 投資現象이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國際資本移動의 觀點과는 다른 각도에서의 接近法이 要求되었다.

즉 市場이 完全하다면 國際間의 去來는 輸出이나 라이선싱과 같은 市場去來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지만 現實市場은 수많은 人爲的 및 自然的인 要因 때문에 不完全 하기 마련이고, 이와 같은 不完全性으로 인한 市場失敗를 回避하기 위해서 企業은 海外直接投資를 하게 된다는 接近法이다. 이와 같은 유형의 FDI를 說明해 주려면 첫째, 企業이 海外에 進出하는 구체적인 動機가 무엇이며, 둘째, 익숙하지 않은 海外의 企業環境에서 現地企業과 경쟁하여 이길 수 있는 源泉은 무엇이며, 셋째, 여러가지 海外事業 方法 中에서 FDI를 선택하게 되는 要因은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한 內容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觀點에서 전개된 FDI 理論의 出發點은 Hymer의 獨占的 優位理論이었는데 이 理論에서는 企業特有的인 競爭의 優位가 어떤 源泉으로부터 나오는가 하는 데 대한 의문은 어느 정도 해결해 주고 있으나, 國際經營의 基本的인 형태 즉 輸出, 라이선싱, FDI 中에서 FDI를 선택하게 되는 理由에 대해서는 說明해 주지 못함으로써 FDI에 대한 必要條件은 되나 充分條件에 대한 說明은 되지 못했다.

그 이후 開發된 行爲理論, 製品壽命週期理論, 寡占的 行爲理論 및 流動性 理論, 通貨地域 差異理論, 資本市場 不完全性 理論, 巨視經濟的 接近理論 등은 FDI의 어떤 特殊한 斷面에 대해서만 說明해 주고 있을 뿐이며, 海外直接投資理論이 다루어야 할 幾 가지 基本的인 問題에 대해서는 거의 接近하지 못하고 있는 理論들이라 할 수 있다.

1970年代 中반부터 이러한 諸理論들을 統合하여 FDI에 관한 一般理論을 開發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져, 라이선싱과 FDI의 선택기준에 대한 問題에 대해 획기적인 시각을 제시한 內部化理論이 등장하여 한때는 海外直接投資의 一般理論으로 생각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內部化理論도 輸出과 FDI中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또는 海外直接投資를 할 때 어느 곳에 할 것인가에 관련된 立地要因의 說明이 약했다.

이에 Dunning은 기존의 獨占的 優位理論과 內部化理論에다가 生産立地理論을 추가하여 折衷理論을 개발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海外直接投資理論의 주된 흐름을 찾아보면 獨占的 優位理論→內部化理論→折衷理論으로 연결된다고 보겠으며, 여타 理論들은 각기 海外直接投資의 特定한 部分만을 설명해 주는 단편적인 것들이라 하겠다.

한편 開途國의 海外直接投資를 보는 시각은 첫째, 先進國企業의 直接投資 現象을 설명하기 위해 開發된 理論을 그대로 적용하려는 觀點과 둘째, 開途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 活動에 대한 독자적인 이론으로 설명하려는 觀點 및 셋째, 先進國理論을 修正適用하려는 觀點으로 요약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이들도 결국은 企業特有的인 優位, 內部化 優位, 立地優位の 세가지 FDI 必要條件中 企業特有的인 優位の 性格이나 強弱에 대한 認識이 다를 뿐 기본적인 이론적 골격은 折衷理論의 構造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나라의 海外直接投資에 관한 實績이 充分히 축적된 후 어떤 실증적 분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위와 같은 假說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와 같은 과정에서 우리 나라 海外直接投資의 독특한 面을 발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1) 閔相基, 國際財務管理, 韓國放送通信大學, 서울, 1983.
- (2) 閔相基, "韓國製造企業의 海外直接投資," 「鄰齊 黃炳峻 博士 回甲記念論文集」, 서울大學校出版部,

1984, pp. 831-862.

- (3) 朴廷憲, 現代投資論, 茶山出版社, 서울, 1983.
- (4) 朴洪立, 現代經濟原論, 經世院, 서울, 1982.
- (5) 李鶴容, 微視經濟理論, 茶山出版社, 서울, 1979.
- (6) 鄭求鉉, 國際經營學, 法文社, 서울, 1984.
- (7) 趙東成·河鍾郁(共譯), 國際經營者論, 英志文化社, 서울, 1984.
- (8) Agrawal, R.G., "Third-World Joint Ventures: Indian Experience" in Kumar, K. and McLeod, M.G. (ed.), *Multinationals from Developing Countries*, Lexington Books, D.C. Heath and Co., 1981.
- (9) Agarwal, J.P.,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 Survey," *Weltwirtschaftliches Archiv*, Band 116, Heft 4, 1980.
- (10) Aharoni, Y., *The Foreign Investment Decision Process*, Boston, 1966.
- (11) Aliber, R. Z., "A theory of Direct Foreign Investment" in Kindleberger C.P. (ed.), *The International Corporation*, Cambridge, Mass, M.I.T. Press, 1970.
- (12) Aliber, R.Z.,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in a Multiple Currency World," In Dunning, J.H. (ed.),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London, 1971.
- (13) Bandera, V.N., White, J.T., "U.S. Direct Investments and Domestic Markets in Europe" *Economia Internazionale*, Vol. 21, Genova, 1968.
- (14) Barlow, E.R. and Wender, I.T., "Foreign Investment and Taxation," Englewood Cliffs, 1955.
- (15) Buckley, P.J. and Casson, M., "The Future of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London, 1976.
- (16) Brash, D.T., "American Investment in Australian Industry," Canberra, 1966.
- (17) Caves, R.E., *Multinational Enterprise and Economic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82.
- (18) Cohen, Benjamin, *Multinational Firms and Asian Exports*, New Haven, 1975.
- (19) Daniels, J.D., Ogram, E.W., Radebaugh, L.H., *International Business Environments and Operations*, 3rd. Ed, Addison-Wesley Publishing Co., U.S.A. 1982.
- (20) Dunning, J.H., "Trade, Location of Economic Activity and the MNE: A Search for an Eclectic Approach," London, 1977.
- (21) Dunning, J.H., "International Production and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Allen and Urwin, London, 1981.
- (22) Dunning, J.H., "Explaining Outward Direct Investment of Developing Countries: in Support of the Eclectic Theory of International Production" in Kumar, K. and McLeod, M.G. (ed.), *ibid*, 1981.
- (23) Flower, E.B., "Oligopolistic Reaction in European Direct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Ph. D. Diss., Georgia State University, 1975.
- (24) Giddy, I.H. and Young, S., "Conventional Theory and Unconventional Multinationals: Do New Forms of Multinational Enterprise Require New Theories?" in Rugman, A.M. (ed.), *New Theories of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London & Canberra, Croom Helm, 1982.
- (25) Hirsch, S., "An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Theory of the Firm," *Oxford Economic Papers*, N.S., Vol. 28, Oxford, 1976.
- (26) Hufbauer, G.C.,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and Direct Investment," Cambridge, 1975.
- (27) Hymer, S.H., "The International Operations of National Firms: A Study of Direct Invest-

- ment." Doctoral Dissertation, M.I.T. Press, 1960.
- (28) Hymer, S.H. and Rowthorn, R.,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International Oligopoly: the Non-American Challenge" in Kindleberger C.P. (ed.), *ibid*, 1970.
- (29) Jorgenson, D.W., "Capital Theory and Investment Behavior"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3, Evanston, 1963.
- (30) Knickerbocker, E.T., *Oligopolistic Reaction and Multinational Enterprise*, Boston, 1973.
- (31) Kojima, K., "Direct Foreign Investment," Prager Publishers, New York, 1978.
- (32) Kojima, K., "A Macroeconomic Approach to Direct Foreign Investment," *Hitotsubashi Journal of Economics*, June, 1973.
- (33) Kindleberger, C., *American Business Abroad; Six Lectures on Direct Investment*, New Haven, 1969.
- (34) Lecraw, D.J., "Internationalization of Firms from LDCs: Evidence from the Asian Region," Kumar, K. and McLeod, M.G. (ed.), *ibid*, 1981.
- (35) Magee, S.P., "Information and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An Appropriability Theory of Direct Foreign Investment," in Bhagwati, J.N. (ed.) *The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Cambridge, Mass., M.I.T. Press, 1977.
- (36) Ozawa, T.,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Industrial Structure; New Theoretical Implications from the Japanese Experience," *Oxford Economic Papers*, Vol. 3, 1979.
- (37) Prachowny, M.F.J., "Direct Investment and the Balance of Payments of the United States," New York, 1972.
- (38) Perlmutter, H.V., "The Tortuous Evolution of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Columbia Journal of World Business*, (Jan.-Feb., 1969).
- (39) Ragazzi, G., "Theories of Direct Foreign Investment," 1973. in Sang Kee Min (ed.), *Readings in Multinational Enterprise*, Seoul National University.
- (40) Ragazzi, G., "Theories of the Determinants of Direct Foreign Investment," *IMF Staff Papers*, Vol. 20, Washington, 1973.
- (41) Reuber, G., Crockelle, H., Emerson, M., Gallias-Homono, G., "Private Foreign Investment in Development," *Development Centre of the OECD*, Oxford, 1973.
- (42) Robock, S.H., Simmond, K., Zwick, J., *International Business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 Richard D. Irwin Inc., U.S.A., 1977.
- (43) Root, F.R.,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5th. E., South-Western Publishing Co., Cincinnati, Ohio, 1984.
- (44) Rugman, A.M.,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and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Lexington: D.C. Heath, 1979.
- (45) Rugman, A.M., *Inside the Multinationals: The Economics of Internal Markets*,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81.
- (46) Severn, A.K., "Investment and Financial Behavior of American Direct Investors in Manufacturing," New York, 1972.
- (47) Stevens, Guy V.G., "Fixed Investment Expenditure of Foreign Manufacturing Affiliates of U.S. Firms," *Yale Economic Essays*, 1969.
- (48) Tobin, J., "Liquidity Preferences as Behavior Towards Risk,"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25, Cambridge, 1958.
- (49) Vernon, R., "The Product Cycle Hypothesis in a New International Environment,"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41, Oxford, 1979.

(50) Vernon, R., *Sovereignty at Bay*, Basic Books, New York, 1971.

(51) Wells, L.T., "The Internationalization of Firms from Developing Countries" in Agmon, T. and Kindleberger, C.P. (ed.), *ibid*, 1977.

(52) Wells, L.T., "Foreign Investors from Third World" in Kumar, K. and McLeod, M.G. (ed.), *ibid*, 1981.